

1998年度
國政監查

教育委員會會議錄

(附錄)

國會事務處

被監查機關 서울特別市教育廳

日 時 1998年10月26日(月)
場 所 서울特別市教育廳會議室

【서면질의·답변서】

(답변서)

○서울特別市教育監 劉仁鍾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부문)

(李在五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교과 전담교사 감소에 대한 대책

(답 변)

○'98년에 예상외로 교원명예퇴직이 급증하여('97년 까지 최근 3년 평균 명예퇴직인원 334명, '98년 명예 퇴직 1,042명, 평균의 3.1배) 교원수급 대책에 차질이 발생하여 '98.9.1자로 교과 전담교사를 451명 감축하고 학급담임으로 전환한 바 있음.

○'99년2월말 명예퇴직 신청은 '98년보다 약 3배에 이르고 있어 역시 교원수급에 지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최대한 신규채용 교사를 증원하여(다만, 교육대학 졸업자 및 초등교원자격증 소지자 수요와 관련됨)교육부로부터 배정된 교과전담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 의)

교원정년, 명퇴, 퇴직수당에 대하여 불안하다.

(답 변)

○교원의 정년과 퇴직수당에 대한 문제는 국회와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문제임

○명예퇴직 수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 전원을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명예퇴직이 수용되지 못한 교사에게는 협조와 이해로 2세교육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도록 지도하겠음.

(질 의)

교사 정년은 인성교육에 적합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

(답 변)

○교사(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한 법률 사항이므로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임

○인성교육은 풍부한 경륜이 요구되므로 타 공무원에 비해 정년 나이가 많은 것만을 지적하여 교원의 정년 연령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 의)

언론이 비교육적 행위를 집중 부각함으로써 교원의 사기가 저하된다. 교단이 황폐화되고 있다.

(답 변)

○교원의 사기저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시고 관심을 보여주시며, 특히 교원의 사기저하가 교직의 불안을 초래하고 교육 본질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촌지 등 학교 부조리 소수 교원들의 비교육적 문제를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각종 재정의 어려움속에서도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교직사회는 명예와 사명감으로 유지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례로 인해 사회와 학생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교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언론에 묻고 싶을 뿐입니다.

○학교의 각종 부조리(촌지, 학교폭력)는 계속 척결해 나가고 있으며 사실상 그 성과가 교육계에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 의연히 대처하고, 조용히 또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교육관계자 및 사회 인사들이 교원의 사기를 드높여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 의)

학급당 학생수가 너무 많다, 시설에 비해 학생수가 많다

(답 변)

각급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연차적 시설확충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진적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

○학급당 학생수

(단위 : 명)

연도별 학교급별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비 고
초등학교	38.6	39	40	40	40	40	40	
중 학교	39	37	35	35	35	35	35	
고등학교	52(56)	50(50)	46(45)	40(39)	39(38)	36(36)	35(35)	

※ ()내는 실업계 학교임

상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연차별 학교설립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하

나 현재의 국가재정 여건상 교육재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연도별 학교 설립계획

(단위 : 학교수)

연도별 학교급별	실 적			계 획				비 고
	'97	'98	계	'99	2000	2001	계	
초 등 학 교	4	5	9	6	9	5	20	
중 학 교	-	1	1	1	4	7	12	
고 등 학 교	2	4	6	-	1	6	7	
계	6	10	16	7	14	18	39	

(질 의)

대형학교보다 미니학교가 필요하다.

(답 변)

점진적인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권장되고 있는 적절한 학교규모는 초등학교 36학급, 중·고등학교는 24학급으로서 소규모 학교 유지는 지향되어야 할 과제이나,

서울의 경우는 학교용지 확보여건 및 학생수요를 감안 할 때 기존학교뿐만 아니라 신설 학교에 대하여 전면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최근에 초등학교 3개교(연지초 24학급, 구남초 18학급, 중광초 18학급)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소규모로 설립한 바 있음.

앞으로도 제반 학생수용여건과 예산의 효율적 투자차원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장기적인 교육지표 달성에 부합되는 학생 수용시설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질 의)

교육현장을 경제논리화 함으로써 교사의 사기가 저하된다.

(답 변)

○작년말부터 시작된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정부재정과 교육재정 및 교사들의 가정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의 경제활동이 불안한 현실이고

○경제논리보다는 명예와 신념을 중시해야 할 교직사회도 봉급감축, 정년단축 및 연금불안 등의 불안요인이 파급되면서 다수의 우수한 중견교사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있는 현실임

○그러나 시대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바른 교육만이 제 2건국을 앞당길 수 있다는 신념으로 흔들림 없이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사명감

을 가지고 안전된 교직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원의 임금지원에 대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리청 자체노력은 물론 관계당국과도 긴밀한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질 의)

교단선진화사업의 허와실-자료부족, 전문가 부족(활용교사 부족), 예산낭비

(답 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교육 정보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적정한 교육기자재의 보급과 현장교사들의 활용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지속적이고 대폭적인 교사 연수 실시 및 양질의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에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교단선진화 사업은 교육정보화 시대에 초·중·고교의 모든 일반교실에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 교수-학습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통해 첨단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학교현장의 교사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여, '97년에는 76편을 보급하였고, 올해에는 12종의 소프트웨어를 보급할 계획이며, 또한, 민간업체가 개발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초·중·고교 1천152교에 학교당 50만원씩 총5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더 나아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교사들의 활용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1만5,000여명의 연수를 실시하였고, 특히, 올해 처음개설된 교단선진화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제작과정은 방과후 야간연수를 개설하는 등 많은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에 이미 설치한 교단선진화 기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과 교실이나 특별교실에 재배치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 여건에 맞는 재배치 활용 방안을 학교에 통보하였음.

○또한, 앞으로의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당초 '97년부터 '99년까지 보급 완성할 계획이었으나, IMF체제로 인해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2000년 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학교의 활용희망 의지와 활용하고자하는 교사의 능력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질 의)

생활기록부는 “TV는 사랑을 싣고”용으로 무의미하다

(답 변)

○각급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제25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교육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 법정 장부로서, 학생들의 발달 상황을 전산처리·보존 및 학생지도자료로 활용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인적·학적사항, 행동발달·교과학습 발달상황 등 13개의 자료입력 항목을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된 자료임

○학생의 교과성적이나 행동발달 상황에 대한 정보는 학생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의욕을 높이게 될 것이며, 학생에 대한 충분한 정보는 학교의 교수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교사는 학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기초로 수업계획을 세우고, 학습결손을 진단하며, 또 행동발달상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줌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육행정적으로 진급과 졸업을 결정하며, 특기 소지자 등을 선정하는 데 활용되고, 상급학교 진학시 입학전형자료로도 활용됨.

또 다른 학교나 취업할 직장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활용됨

(질 의)

시·도별 평가제(시·도 교육청 평가에 따른 교원업무 증가)

(답 변)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교육부에서 자율성 확대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통한 자구노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98년도 평가실시 현황

• 4개 평가영역(15개 과제)

- 교실수업 혁신
- 교육재정운용의 효율화
- 수요자 중심의 학교체제 구축
- 교육지원체제 개혁

- 평가위원 : 서울대 김신복 교수 외 23명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평가

○교원업무 증가에 따른 대책

-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선학교에서 보고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바,
-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가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일선학교 교원의 업무 경감, 수업결손 방지 등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문서와 통계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교원의 업무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부에 대하여도 평가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가급적 일선학교에서 보고를 받아야 하는 평가자료는 제외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음
- 앞으로 평가와 관련하여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음

(질 의)

새물결 운동의 문제점

- 교사의 교육적 활동의 계량화
- 교사의 교육관 차별화 존재
- 학부형의 학교 업무에 과대하게 간섭, 담임문제 등
- 새물결 운동은 업무량을 오히려 증가
- 서울시교육청 예산 집행이 비생산적이다 (선도학교 7,000~8,000만원)-35억

(답 변)

- 『중학교교육 새물결 운동』은 중학교 교육 방법을 혁신하기 위하여,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방법 혁신, 생애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인 진로교육, 교원·학부모의 의식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중학교교육 새물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별 선도(거점)학교를 지역교육청당 1개교, 총 55개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 선도(거점)학교는 과제별 특성에 따라 3,000~7,000만원의 예산(총 29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선도(거점)학교에서는, 이 예산을 지역교육청 관내 모든 중학교를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과 보급, 교원·학부모 연수에 사용하고 있음
- 『중학교교육 새물결 운동』의 추진 과정에서, 선도(거점)학교 교사의 업무가 증가하였고, 관내 다른 학교의 교사들도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교수-학습 프로그램 및 자료의 활용, 연수·참가 등으로 업무가 증가되었으나 학교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연찬이 필요함
- 또한 추진 실적의 계량화, 학생 중심의 수업 활

동 전개로 인한 교사의 교육관 차별성 희석 등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 『중학교교육 새물결 운동』의 추진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보완하여, 예산이 목적에 맞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추진과정의 내실화를 기하여, 교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 의)

명예퇴직과 교사수급 문제에 대한 대책

(답 변)

- 명예퇴직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교원수급에 차질이 발생함으로써 교과전담 교사 보다 학급담임교사를 우선 배치하게 됨에 따라 '98학년도 후반기 교과전담 교사를 감축운영 하였던 바,
- 최대한 신규채용을 증원하는 증원계획을 입안 시행하고자 함.
- 다만 신규채용의 확대에는 인적자원과 예산이 연계되어 있음

(질 의)

고령교사 불안(인성-도덕적-정서적) 및 전문성 무시

(답 변)

- 교육개혁과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교육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교육방법의 적용과정에서 고령교사들의 심리적 갈등은 충분히 이해가 됨
- 이러한 고령교사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운영과정에서 고령교사들에 대하여 가능한 한 배려가 있어야겠지만, 고령교사들도 스스로 전문성을 살려 새로운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교육방법의 혁신에 모범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함.

(질 의)

교육개혁-수요자 중심교육은 문제있다.

교육개혁

- 기존교육 주체 불신
- 참교육 어머니회(학교감독권 요구)
- 교사 중심의 개혁이 아니라 교사를 개혁 대상화 교육개혁이 연속성이 없다. (업무 과다, 예산 낭비)

(답 변)

- 현대에는 국민 전체가 보유한 지식·정보의 양과 질이 개인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이며 국경없는 세계화 시대로서, 각국은 교육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달성시키고자 앞다투어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그 구현 방안으로 '열린교육 체제'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이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교육개혁의 주제로 내세워 모든 학습자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세계적 수준의 학문과 과학기술을 창조하며 종합적 교육지원, 평가체제를 마련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습자 중심 교육', '교육의 다양화', '학교운영의 자율과 책무성',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교육의 정보화', '질 높은 교육'으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 창의가 고려되지 못하는 획일적 수업과 평가 방식, 19세기적인 낡은 관념에 기초한 지식 교육, 그리고 학생을 수동적 존재로 소외시켜 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교육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교육개혁은 국가발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주체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수요자를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학교가 변하고 수요자가 만족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야 함
-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는 다양한 교육방법과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방법, 그리고 교과 성적에 의한 서열화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정보화 교육여건을 구축하고 다양한 학습의 장을 조성하며 교육수요자 선택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증대를 위해 지원, 조장 행정을 펴고 있음
- 즉,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초·중학교 새물결 운동을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행·재정의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을 최대 과업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학교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현장 교원으로 하여금 다소 업무 부담과 부정적인 견해를 초래케 한 것이라 생각함
- 이러한 현상은 교육개혁 추진시 제도 개선이 단시일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재정지원이 단기간에 만족스럽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자 위주의 교육체제로 전환하는데 따른 부작용의 하나이므로 앞으로 서울교육의 특수성과 지역

실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부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개혁을 완성시켜 나갈 것임

- 또한,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교육개혁 추진주체로서 교원을 개혁에 앞장서도록 고무 격려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으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 창구를 넓히고, 학부모, 지역사회 모임을 활성화하여 직접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육개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질 의)

교사 평가제 문제이다.

(답 변)

- 교육공무원 자기실적평가서에 따라 객관적 자료로 평가하며, 교장·교감이 확인, 평정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함.
- 남·여 구별없이 평정하여 평정의 객관성도 높이고 있음.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97.7.9)이 개정되어, '99년도 시행후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교육부에 건의하고자 함.

(질 의)

연금동결 문제 45-33년 근무한 자만 수령하는 문제

(답 변)

- 근무년수에 따라 퇴직연금을 제한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할 수 없는 문제로써 공무원연금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질 의)

학사감사를 일반행정직이 담당함은 비교육적이다.

(답 변)

- 열린감사 활성화 기본방안으로 '98.2.13에 학사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교종합감사시 학사분야에 대하여 해당학교의 장학사의 감사업무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일반직이 지원토록 한 바 있고

- 감사범위가 넓은 학사분야를 장학사 1명이 4~5일 정도로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학' 차원의 인식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구두' 또는 '현지조치' 처리되어 시정이 안되는 면이 있어서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한 조치이며

○학사감사에서 수감자인 교사들이 다소 거부감이 나 비교육적인 일이 있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여건이 허락한다면 지역교육청 기획감사계에 전문직 장학사 배치도 고려해 보겠음

(질 의)

교육세

-목적세로 해야 한다.

-19세기 환경으로 21세기 교육을 할 수 있나

(답 변)

○재정경제부에서는 정부 재정 적자를 조속히 극복하고 실업대책과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조세체제의간소화에따른세법및특별회계법의조정등에관한임시조치법」을 국회에 상정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이에 교육행정 당국은 교육세 폐지시의 결손재원을 보전할 입법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대응 논리를 펼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세의 폐지는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이되는 지방교육자치의 존속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신설하는 방안 및 기타 법정교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교육부와 연계하여 교육세 폐지론에 단호히 대처할 방침임.

(질 의)

업무량 과다-질적위주, 지시위주-비교육적

(답 변)

○교원이 수업을 포함한 학생지도, 과외활동, 사무관리 등의 과중한 업무분담으로 인하여 사기저하 및 교수-학습지도 활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업무감축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공문서 업무감축 실적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발송건수는 '96년도 6,895건, '97년도 6,733건으로 162건을 줄였으며 '98년도에도 10% 이상을 줄여나가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공문서 내용은 실적이나 지시 위주라기 보다는 현실적인 통계나 교육활동을 돕는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음. 또한 비교육적인 요소를 없애고 학생지도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만을 공문으로 보내기 위한 문서등록 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초·중등 모든 학교에 기능직이나 일용직, 시간제 보조원등을 100% 채용하고 그들을 교육시켜 교사들의 사

무를 돕도록 하고 있음

○앞으로 전 학교에 사무자동화를 적극 추진하여 교사들의 업무감축에 힘쓰겠음

(질 의)

한줄 세우기 교육-학교평가-과정무시-결과무시
학교평가 예산차등 문제점
학교평가제 문제 있다

(답 변)

○학교평가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공교육의 책무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음

○우리 교육청은 '94~'96학년도 3년간 학교 자체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이 평가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단점이 나타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97학년도부터는 '96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학교평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97학년도에는 초·중·고, 지역교육청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98학년도에는 2년 주기의 평가방침에 따라, 초·중학교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97 학교평가에서 서식에 의한 획일적인 실적평가, 교사의 업무 가중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교육장 책임하에 지역 실정에 맞는 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였고, 평가 항목을 30문항 이내로 하여, 서류에 의한 실적 중심이 아니라, 교육활동 중심으로 하여, 학교장의 지도성과 학교 특색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음

(질 의)

교육이 흔들리고 떠다니고 있다.

인기 중심의 교육정책 탈피하라

담 안팎의 교육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다.

(답 변)

○교육개혁이 시작된 이후 교육부로부터 수많은 교육개혁 과제들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정책과 현장 시행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임

○교육개혁의 핵심은 교실안에 있는 교사와 학생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문제점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천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어떤 교육정책이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

당한 기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거나 조급하게 자주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최근 극히 일부교사들의 비리에 대해 전체 교사들을 매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정년단축 문제가 논의되는 등 교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손상시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퇴직 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교직을 안정시키고 교원의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 교원 복지를 개선 해주고, 교원들이 교육적 신념에 따라 소신있게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의)

학교 교육은 건전한 인성 발달을 도모하고 창의력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학습량을 반으로 줄이고 교사의 수업 부담을 대폭 줄일 용의는?

(답 변)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다양화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세대를 교육하기 위하여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고 창의성과 잠재력을 계발하는 학습자 주도의 토의중심 수업과 문제 해결중심 수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학년당 이수과목 수 축소,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여 가르치는 학업성취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함.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사의 수업 부담은 교사의 수업 부담 보다 행정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음. 이 문제는 현재도 교사 행정 업무 경감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강화하여 추진할 예정임.

(질 의)

즐겁고, 재미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은 오전에만 하고 오후는 특활시간으로 해야 한다. 4, 5, 6학년의 주당 32시간, 수업시수 너무 많다.

(답 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학교교육을 위하여 교육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이 담겨진 교

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

○법에 의거하여 고시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교과편제와 시간배당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초·중등학교의 교육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적 기준임

○따라서 주당 수업시수, 교과편제 등은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질 의)

초·중·고 교사는 개혁대상이고 대학교수는 무풍지대인가?

(답 변)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활동의 전문성에 대하여는 초·중·고교와 대학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교육개혁은 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교육개혁의 상당부분이 대학교육과 대학입시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에서 교육개혁의 대상에 초·중등교육 담당 교원과 고등교육(대학교육) 담당 교원의 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오히려 교육개혁사업의 책무성은 초·중등 교원에게 강조돼야 한다고 봄.

(질 의)

교사의 정당 가입 문제 반대한다.

(답 변)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에 교육은 교육의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교원의 임무는 학생을 교육함에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국민의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함.

○따라서 교원의 정당가입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질 의)

교육정책 실명제하고 문서실명제 하라

-감사차원이 아닌 현장차원에서 입안하라

(답 변)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참여한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함으로써 관련자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육정책관련 문서의 실명화 및 등록·보존

• 모든 문서에는 관련자의 자필서명 기재

- 내부결재 문서의 등록·보존
- 시행문에 관련자의 실명, 담당부서, 연락처 등 표시

- 교육정책과정 관련자의 기록유지

- 관련자의 인적사항 기록
- 관련자 교체시 인수·인계 철저
- 보고과정중 내용변경시 의견 첨부

- 교육정책관련 회의의 기록 유지

- 공청회, 세미나 등의 기록 보존
- 정책 담당자의 관계관회의 기록 보존

- 행정행위의 실명 표시

- 인·허가 사항 및 각종 민원발급 등에 실명 표시 등을 실시함으로써

○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및 주요정책의 책임소재에 대하여 명확를 기하고 있음.

(질 의)

시범학교 일반화 될 수 없다.

(답 변)

○ 시범학교 운영은 교육의 당면과제 해결과 열린 교육의 정착 등 새로운 교육이론,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교육자료 등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각급학교에 확산시켜 일반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범학교의 운영과제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시범교과(영역) 편중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면보다는 교육계획,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등 학교교육의 본질 문제에 대한 연구와 교수-학습방법 개선 활동에 중점을 두고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도 시범학교의 운영과제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질 의)

외국의 선진교육이 우리화 될 수 없다.

(답 변)

○ 21세기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라고 합니다. 21세기에 부응할 인재를 육성해야 할 교육의 책무는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고력과 창의력이 계발되어야 하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문제해결력이 바탕 되어야 함

○ 우리의 교육은 세계의 교육사조에 따라 그 영향

을 받으면서 발전해 왔고 지식위주 자연주의, 인문주의 학문 중심주의 교육 등의 영향을 받아 교육사조 별로 특징을 나타내면서 진행되어 왔음

○ 지금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도 국가경쟁력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

○ 외국이 선진적인 교육을 실시하면 우리도 그 장점을 받아들여 실시해 보고 현장에서의 적응되는 장·단점을 파악·점검하여 좋은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외국의 선진교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 우리것화 하여야 함

○ 세계를 알고 세계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선진교육을 살펴봄도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함

(질 의)

교사 연구 보조비 500만원 지원→줄속 행정 예산 낭비

(답 변)

○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의 교실수업을 개선·혁신하기 위하여 교원이 공동연구를 통하여 교과교육 전문성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나아가 새 학교 문화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과교육연구회(팀)를 지원하고 있음

○ 교육부는 교육부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과교육연구회(팀)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직접 공개모집·심사·선정하여 전국의 1,000개 교과교육연구회(팀)에게 각각 500만원 내외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음(서울 : 182개팀)

(질 의)

교사가 우울증에 걸리면 교육이 우울증에 걸린다.

교사사기 양양책 시급

(답 변)

○ 교원의 사기저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시고 관심을 보여 주신 것과, 특히 교원의 사기 저하가 교직의 불안을 초래하고 교육 본질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작년말부터 시작된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부 재정과 함께 우리 서울교육의 재정 및

교사, 공무원들의 가정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 또한 교육재정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일부 교사의 잘못이 간혹 언론에서 크게 취급되어 그렇지 않은 많은 선량한 교사들이 위축되었고, 이에 학부모 및 사회에서 교사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었으며, 또한 설상가상으로 정년단축이나 구조조정 등이 전체 교원의 사기저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며
-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약, 절감하여 교원의 봉급재원 확보 등 재정적 지원방안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시대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교육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잠재력으로 제2의 건국을 앞당길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 촛지 등 학교부조리에 대한 사회 및 언론의 계속적인 취급에 따른 교원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교육홍보에 주력하고 정년단축문제, 공무원 연금 문제 불안 등의 국가차원의 해명과 안정을 빨리 기할 수 있도록 각계에 건의 하겠음.

(질 의)

교육정책은 펜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눈물 속에서 나온다

교육을 계획화, 실적화, 수량화 할 수 없다

(답 변)

- 교육 정책이 현장에 착근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임
-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현장 교사, 교감, 교장,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 현장 교사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여, 교육 정책의 수립에 현장교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이 현장에 착근되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음
- 또 교육을 계획화, 실적화, 수량화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것도 자명한 이치임
- 앞으로 교육정책 수립시나, 추진 성과 평가시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교육의 본질적인 면을 반영·평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자 함

(질 의)

50대 중반은 교단의 허리이다.

(답 변)

-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50대 교원의 역할은

막중할 뿐 아니라 인성지도,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제교육Program의 아이디어와 운영방법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다만, 최근 명예퇴직자가 급증하여 50대 교원의 교직 이직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 사료되며,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전문인력을 사장하는 형편이라 하겠음

(질 의)

교육정책 수립에서 일반직 참여가 높기 때문에, 교직이 행정위주의 관료화 된다

(답 변)

- '98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98 서울교육시책(지표, 기본방향, 중점과제 및 혁신과제)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98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교육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13명의 일선 초·중·고교의 교장, 교감과 교육전문직 및 교육행정직을 위원으로 한 서울교육시책 수립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이 기초위원회는 '97.10.1~10.30간 총 8회의 협의회를 가졌으며, 여기에서 교육개혁 과제, 국정감사, 시의회 및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의 정책 질의 및 답변자료,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시책, 대통령 지시사항, 교육감 지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그 자료를 바탕으로 '98 서울교육시책을 수립하였음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립된 '98 서울교육시책은 본청 각과, 지역교육청 및 사업소에 시달되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그 동안의 장학지도, 학교평가, 종합감사 및 각종연수, 간담회, 각종 모니터제 운영, 그리고 일선학교 교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인사와의 대화 등을 통하여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98 주요업무계획 수립 기초자료를 작성하였음
- '98 주요업무계획은 이러한 기초자료를 전반적으로 종합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본청 각과 및 지역교육청, 사업소의 주무담당자, 과장, 국장이 검토·수정하여 완성되었음
- '99 주요업무계획도 이와같은 절차에 의해 업무가 추진되고 있으며, '99학년도 혁신과제로 추진할 예정인 『고등학교교육 새물결 운동』추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국교육개발원에 고등학교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탁하여 제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등교육국 소속 교육전문직의 수차례에 걸친 자체 검토 협의와 의

부인사의 자문 및 교장, 교감 등 현장 교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여 세부과제를 도출한 것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다고 봄

(질 의)

열린교육의 주체는 학부모가 아니라 교사다

(답 변)

○열린교육이 '개별화된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고 정의되더라도 모든 수업은 치밀하고 정교한 교육계획(교육과정, 수업설계)에 따라 실제 교실 수업을 전개하는 교사의 몫임

○학부모는 단지, 열린수업에서 보조자, 조력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학부모가 주체가 될 수는 없음

○따라서 학부모가 교사 이상일 수도 없고, 교사를 대리할 수도 없으며 학부모가 교사를 대신하여 아동을 지도할 수도 없다고 생각됨

(질 의)

교육개혁은 군사쿠테다가 아니다.

-교육은 정권획득의 전리품이 아니다.

(답 변)

○21세기를 맞는 세기적 전환은 단순히 연대기적 미래나 먼 훗날의 상황이 아닌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 초근대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후진국을 망라한 세계 각국은 이러한 미래에 교육이 어떻게 존속될 것인가 그 향방을 예측하고자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정권 유지나 교직 압력 수단 이전의 문제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과업이라고 생각함

○지금까지와 같은 교육의식과 방법으로는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어렵게 됨으로써,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된 것이 교육개혁의 취지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그러나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저항을 받게 된 요인은 변화에 대한 개혁 자체의 심리적 부담과 시장원리의 과도한 요구, 현실과 다소 거리감 있는 이상적인 개혁안, 상부의 지시 위주의 추진방법, 그리고 개혁의 당위성,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이해부족 등에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개혁의 주체인 현장 교원의 어려움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교육여건이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효과적인 변화를 유도하

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봄

○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수요자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정보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과정이 교원들에게 많은 업무 부담을 초래하여 적극 수용하고 호응하기에 앞서 문제점이 노정되었다고 봄

○교육개혁은 학교 교육개혁으로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위 학교의 개혁은 목표이자 수단이 되며 그 결과는 우리 나라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의 역사적 과업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교육자의 노력이 절실하며 전 국민의 동참이 필요함

○교육개혁은 교육계나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전 국민, 전 분야가 함께 이루어 내야 하는 국가적 과업이므로 범 사회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 지원 기관인 교육부도 공급자인 교육개혁 시행자로서의 개혁 전문성과 현장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 업무를 개선하고자 하는 지원 행정이 필요하며 교육청은 개혁의 리더로서의 기능 개선 등의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함

○학교에서는 학교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교장, 교감의 리더쉽과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추구하고 학부모, 지역사회 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교사들은 교육의 주체이므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개혁의 선봉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함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상의 애로점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교육개혁 실천의 절차와 방법 등을 개선하며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교원이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질 의)

교장, 교감, 교무주임이 동시 출장 못하게 해야 한다.

(답 변)

○교장, 교감, 교무주임의 동시 출장은 학교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며 사안발생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어려워 당연한 지적이라 사료됨.

○교감은 교장 유고시 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교장, 교감 중 한 분은 학교에 남아 교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동시 출장은 금하도록 조치하겠음.

(질 의)

사립초등학교 국고지원에 대하여

(답 변)

○재정지원 중단 배경

- '85년 교육부의 사립초등학교 자율화지침에 의거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수성에 부합되도록 학교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소요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납입금을 완전 자율화 하고 '85. 2학기부터 재정지원을 중단함

○사립초등학교 재정지원에 대한 의견

- 사립초등학교의 자율화 방안은 공립초등학교와는 다른 교육과정을 들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동시에 학교측이 학부모와 협의하여 결정한 납입금에 대하여 부담의무를 지게하는 것임

- 사립초등학교를 단순한 의무교육기관으로 판단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다만, 근래에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지원자수 감소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됨

- 경상비(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현재로서는 학교법인 및 학교측의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학부모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학교건물의 노후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 교재교구비 등 일회성 경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98년도 교육환경개선비 1,223,000천원 지원

- 향후에도 자율화 원칙을 준수하되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일회성 경비에 대하여는 지원예정

(질 의)

76개 사립 중, 서울 39개, 5,400여명－교사교류 억제

(답 변)

○공·사립 교류는 현재도 실시되고 사립교원과 공립교원의 교류문제는 신분과 고용주체가 다르고 교육재정상의 문제, 관련법류 등의 범위안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음

(질 의)

교육기관 행정기관화 방지해야 한다.

(답 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 교육기관의 교원·학생들의 교수·학습에 대한 최적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일부 행정의 저효율적 요소와 역할미흡으로 행정을 위한 행정·행정편의주의적 행정이라는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 교육행정기기관의 조직개편시 「저비용 고효율」의 감량경영과 학생/학부모 중심의 지원행정체제를 강화하였으며,

-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Task-Force팀을 구성하여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음

○상기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지원행정체제 강화와 일선 교육현장의 자율성 신장을 통한 교육기관의 행정기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질 의)

인성교육－학교장 재량－창의적 개발

복교생－자기 학교로 갈 것

학생징계 처분의 문제(한국현실에 맞지 않음)

비교육인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징계제도)

경찰 학원폭력 단속, 교문 앞 배치의 비교육적 문제

학생 드라마에 젊은 연예인의 음주, 흡연 장면 방영 문제

청소년의 3대 문제점에 대한 대책

(답 변)

□인성교육－학교장 재량－창의적 개발

○학교별 소집단 심성수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도·농간 교환학습 등 학교장 중심으로 창의적인 지도 방안을 개발·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복교생－자기 학교로 갈 것

○중도탈락생 복학은 퇴학 전 재적교에 복교하도록 하되, 본인이 희망하거나 학교장이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장 추천에 의해 전·편입학하도록 하고 있음.

□학생 징계 처분의 문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 학생 징계 유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명시된 사항임.

□비교육적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징계제도)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 학생 징계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음

□경찰 학원폭력 단속 교문 앞 배치의 비교육적 문제

○경찰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별 담

당 경찰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담당 경찰관』제도는 다소 비교육 측면이 있으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는 바가 큼

○교문 앞 배치 문제는 학교 주변에서 활동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음

□학생지도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학생 드라마 출연 학생은 소속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지도하고 있음

□청소년의 3대 문제점에 대한 대책

<부모와의 대화 단절>

- '가족과 식사시간 함께 하기', '가족산행', '사랑의 편지 쓰기' 등 적극 권장

<교사불신>

-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 추진 : 체벌문화 추방

- 사도실천 : 바람직한 교사상 정립

<사회에 대한 개방>

-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 경로효친 등 전통문화 계승교육 충실

- 학생봉사활동 활성화

(질 의)

교사정년-초·중등 차이가 있어야 한다.

(답 변)

○교사(교원)의 정년은 초·중등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과 통합교육의 시책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불합리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과 교육의 전문성에 초·중등의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더욱이 초등학생은 기초적인 인성교육을 담당하여야 함으로 경륜이 높은 교원이 요청된다고 사료됨으로 교사 정년에 초·중등차이는 논리적 타당성이 없는 일이라고 사료됨.

(질 의)

교사 휴식년제 실시해야 한다.

(답 변)

○교사 휴식년제 실시는

- 첫째, 20년 혹은 30년 이상 한 직장 또는 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안식년 또는 안식일을 주어 6개월 혹은 1~2년 동안 재충전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삶의 활력과 일의 보람을 찾게 해 줄 수 있고

- 둘째, 휴식의 기간동안 일정장소에서 연수에 참가함으로써 전문성 제고에 이바지하게 할

수 있으나

○교사 휴식년제를 실시할 경우

- 첫째, 현 IMF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시의에 적절하지 못하며

- 둘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교사 휴식년제는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참고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교원이 20년이상 재직한 경우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도록 되어있음.

(질 의)

정부 각 부서 행사-초등학교 학생 동원-전시성 행사

(답 변)

○정부 각 부서 행사에 초등학교 학생을 동원한 사례는 '98년 건군 제50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초등학생 20명, 유치원생 20명이 동원되어 가두행진시 국군의 날 행사단에서 준비한 꽃을 증정한 것과 제4330주년 개천절 경축식 행사에 초등학생 960명이 초청된 경우임

○초등학생 동원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 초래되거나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대부분 학부모와 함께 참석하게 하고 있어 때로는 학부모들의 불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에만 학생 동원에 협조하고 있음

○앞으로도 정부 각 부서의 전시성 행사에 학생들이 동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겠음

(질 의)

학교시설 절대부족-복식건물-직원휴게실이 없다.

교사 휴게실이 없어 화장실을 탈의실로 사용, 남녀혼성반 학생도 탈의실이 없어 교실에서 공개적 탈의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현재 각급학교에는 1-2실의 교원편의실이 있으나 직원수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며 여유공간 부족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97년부터 공학학교에는 남녀 혼성반 편성을 확대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학교의 화장실 개조 및 탈의실이 추가로 필요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음.

○탈의실은 기존시설을 개수하여 사용토록 하고

기존시설 부족시 증축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증축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많은 학교에 증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증축이 어려운 학교에는 조립식으로 설치하고 있음.

○교원편의실과 탈의실 등은 학교신설 및 개축시는 설계에 반영 시설하고 있으나 기존건물에 1-3실의 증축은 시공 및 건물안전에 문제가 있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 예산을 확보하여 부족한 휴게실 및 탈의실을 확충할 계획임.

(질 의)

각종 행사 간소화

(답 변)

○각종 행사를 내실화·간소화함으로써 국가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주관 행사의 간소화 지침(국무총리훈령 제355호, '97.12.31)』에 의거

○행사시 규모와 장소는 간소하고 공공시설(자체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행사홍보물은 간단한 안내서로 대체하며, 기념품의 제작 등은 원칙으로 금지하는 등 각종행사를 간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 의)

교과과정 개편 기간 5년인데 재활용은 2년 문제 있다.

(답 변)

○교과서 재활용은 그 기간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나 우리 교육청 4대혁신과제 중 하나인 『우리 경제 살리기 교육』의 세부 실천 사항으로 적극 실시하고 있는 사안임.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재활용 교과서의 회수·보관·배부 방법, 학부모 및 학생들에 대한 홍보강화 등 교과서 재활용 세부실천 방안을 통보한 바 있음.

○재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교사용 지도서를 포함하여 '97학년도에는 153,936권이었으나, '98학년도에는 618,277권으로 4배가 증가 되었음.

○교과서 재활용으로 '97학년도에는 2억1,000만원, '98학년도에는 8억4천4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음.

○앞으로도 예산절감과 학생들의 절약정신 고취를 위하여 교과서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예정임.

(질 의)

교육정책 수립시－'교사청문회 후 현장소리 반영

하라

(답 변)

○교육의 정책 수립이나 정책변화 및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전문가, 교원, 학부모, 행정담당자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음

○각종 심의·자문위원회와 행정모니터제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직접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음

○또한 시행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의견을 들어서 시행과정의 개선점을 발견하여 수정·보완하는 평가 환류 체계를 갖추어 추진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교육의 실현은 현장교원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신념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데 계속 노력하겠음

(질 의)

참스승인증제－평가위주－비교육적이다.

(답 변)

○“참스승인증제”는 현재 교육부 중등정책과에서 입안되어 있을 뿐 결정사항이 아니며, 구체적인 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구체적 안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질 의)

교원 임금피크제, 교원정년제－전문직에 대한 부정

(답 변)

○교원임금피크제나 교원정년제 폐지에 대한 문제가 일부 의견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집행부서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다만 교원의 전문직(전문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대하여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 의견으로 보이며, 교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교원들의 전문성을 갖추어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질 의)

복학생－자기 학교로 갈 것

(답 변)

○복학생이 전에 다니던 학교로 재입학할 것이냐 또는 다른 학교로 편입학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학생(학부모)의 의사에 달려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복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편입학하기를 원하고 있음

○그 이유는 복학생의 경우 동료학생들보다 대부분 한학년이 낮아지기 때문에 학생의 정서상, 그리고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있어 다른 학교로 편입학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사료됨

(질 의)

고입-강남, 강북 차별

-강남 80%-인문계, 강북 60%- 실업계

(답 변)

○서울시에서는 '98학년도 고등학생 신입생부터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하고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에 의해 선발('94년4월에 발표)

○그 이유는 우리 교육청의 문제와 인성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것이 입시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서울시내 고교의 수용률이 103%로 중학교 졸업생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발고사의 의미가 상실, 많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임

○'98학년도 처음 시행한 결과 학생들의 계열별 진학이 고르게 이루어져 일반계고 탈락자가 최소화됨 (441명)

○고입에서 강남과 강북의 차별은 없으며 일반계고 진학 비율은 강남이 77.4%, 강북지역이 60.7%로 매년 비슷함

○실력이 부족하여 실업계를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적성과 소질 및 능력에 맞는 진로선택 지도를 강화하여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대비하고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 계기를 마련하도록 꾸준히 노력

(질 의)

남녀 혼성반→성적 하향 평준화

○혼성반 학생 성적 문제→입시위주에서는 문제, 공부안함

○학부형 혼성반 반대→학교장 재량권 부여

○학교 시설이 남녀 공학으로 부족→탈의실, 화장실 시설 미흡

○교실에서 탈의 남녀 공용→성적 충동을 유발

(답 변)

○남녀 혼성반은 남녀간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하고 상호 존중하는 속에서 신사·숙녀로서의 품성을 함양함과 아울러, 정서적 안정을 통하여 충동적,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권장하고 있음

○가치관, 윤리관의 차이 또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혼성반을 반대하는 학부모도 일부 있으나 사회적·시대적 여건상 불가결한 시책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설득이 요망됨.

○탈의실·샤물함·화장실 등 시설 확충을 위하여 '97년도에 22개 고교에 9억5천만원, '98학년도에는 39개 고교에 18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0년까지 필요한 시설이 구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질 의)

특활교실등 학교에서 사용할 교실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학교의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은 당초 장기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확보하였으나 학교설립후 지역에 따라 아파트 신축이나 지역재개발 등으로 학생수가 증가하여 당초 수용계획을 초과하여 학생이 수용됨에 따라 교실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대·과밀학급 해소, 교육여건 개선, 2부제 해소 등을 위하여 학교 신설이나 교실 증축을 계속하고 있으며, '98년도에 학교신설 27교, 교실 증축 94실을 추진중에 있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설과 더불어 교실이 부족한 학교에 대하여 장기 학생수용계획과 증축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교실을 증축, 부족교실을 해소할 계획임

(질 의)

공동탁아 시설 필요

(답 변)

○유치원교육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와 유아교육진흥법<대통령령 제5,567호 '98.9.17>제6조에 의거하여 유치원도 탁아기능을 포함한 종일제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만3세~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탁아기능을 포함한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므로 별도의 탁아시설 설치에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봄

○만3세 미만의 영아들을 위한 탁아시설은 기존 유치원에 부설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하고, 만3세~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종일제운영 유치원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원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면, 별도의 탁아시설의 설치 없이도 부모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으므로 탁아기능 수요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성화 대

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동탁아 시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탁아시설 즉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등)에서 관장하는 시설이므로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

(질 의)

청소년 쿼터제 입법화에 대한 의견은 ?

- 청소년 관련사업의 1%을 청소년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과세 혹은 투자-

(답 변)

-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립은 환영함.
- 청소년 관련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방법, 과세액 등이 잘못 시행될 경우 청소년의 부담만이 증가하고 문화공간 마련을 위한 재원은 미미한 결과를 발생할 위험성이 우려됨
- 청소년 쿼터제의 입법화는 청소년 정책의 총괄 부서인 문화관광부가 주관하여 교육부 등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사료됨

(질 의)

교원연수·연구 학점화 문제(급여, 승진, 대학원 진학 급증)는?

(답 변)

- 관련근거
 - 교육연수에관한시행규칙(교육부 제714호, '98. 2.28)
 -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교육부령 제716호, '98. 3.31)
 - 교육부 교정 81842-173('98. 3.31)

○문 제 점

- 급여, 승진에 연수·연구학점을 반영할 것으로 예측되어 연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연수가 감축되어 연수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수업 등 교내업무보다는 외부에서의 연수이수에 더 관심이 커질 우려가 있음.

○대 책

- 자비부담연수를 활성화하여 연수수요 충족에 노력함.
- 급여, 승진 등 인사반영시 연수 이외에 교내업무 등 근무성적을 중심으로 하도록 보완책을 마련.

(질 의)

'방과후 보충수업의 형식화'에 대하여

(답 변)

- 일반계 고등학교의 보충수업 강제 실시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임.

- 보충수업은 '99학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폐지할 계획임.

- 희망학생 희망교과를 대상으로 수준별로 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음.

- 보충수업 실시 현황 ('98. 9월 현재)

- 실시학교 : 185개교(93%)
- 학생의 지도교사 선택제 보충수업 병행 학교 94개교(47%)

○향후 대책

- 학생과 학부모의 보충수업 희망조사 철저 실시
- 성취수준별 반 편성 운영 권장
- 학생의 지도교사 선택제 적극 권장
- 학교운영위원회 (미설치교는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위원회)심의후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
- 관리수당 및 수용비 과다 책정 지양

○장기적 대책

- '9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 폐지
- 학생 중심의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질 의)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대책은?

(답 변)

-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운영위원 상호간 갈등·비협조, 일부 운영위원의 동반자 의식 결여, 학부모위원·지역위원의 능동적인 참여 미흡과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나타났음.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 운영위원회의 회의개최 사전예고, 회의공개 및 심의결과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중심의 자율적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위원·지역위원에게 많은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운영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음
-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장학력을 강화하고, 간담회, 서울교육시책 관련 각종 교육 정보 제공 등 학교운영위원회 협의체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의)

승진제도의 문제점

(답 변)

- 초·중등 교장·교감의 고령화(연공서열 위주) 문

제

그 동안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교육경력 평정 만점을 30년으로 하여 승진대상자의 고령화를 초래하였으나, '97년 개정으로 '98년 평정에 28년, '99년에 25년으로 단축하였으므로 앞으로 젊고 유능한 교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을 것임.

○승진가산점 인정상의 문제

도서·벽지진흥법에 의해 도서·벽지 근무교사에게 인정되는 가산점이 해당시·도에 따라 인정 대상이 달라(서울시 경우 가산점 인정 대상교가 없음) 가산점 인정 대상교가 많은 지역에서 타시·도로 전입되는 경우 승진에 우선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97년 7월, 도서·벽지 가산점의 인정이 시·도교육감의 재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도서·벽지 가산점에 의한 승진의 불균형은 해당시·도의 평정업무 규정에 의해 균형있게 조화되도록 개선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음

○연수성적 평정상의 문제

'98년 승진후보자 및 연수대상자 평정시 자격연수나 일반연수(60시간 이상) 중 1개를 선택하여 평정하던 것을 '99년 평정시부터 자격연수와 일반연수로 구분하여 평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각종(자격, 일반)연수가 조화롭게 반영되어 교육연수 성적과 자격연수 성적이 승진에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개선되고 있음.

(질 의)

사립교육의 특성화 필요-공립과의 차별화

(답 변)

○사립교육의 특성화는 학생 선발방법, 수업료, 교사보수체계, 학교 시설·설비 기준, 교육과정운영 등에서 자율화가 이루어지면 건학이념에 의해 특성화한 교육이 이루어지리라 기대됨.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평준화 정책에 따라 중학교의 무시험 전형에 의한 학생 배정, 고등학교의 공·사립 구별없는 학생 선발 방법 등 동일한 학사 운영이 적용됨.

○사립교육의 특성화 정책은 정부차원에서 연구 검토가 필요하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학교 시범 운영 결과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다양화·특성화 방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하겠음.

(질 의)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문제
-예산지원, 외부강사, 고교차별?

(답 변)

○방과후 교육활동은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의 소

질 계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과후 교육활동의 국고지원금은 강사비 보전, 실직자 및 극빈자 자녀 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개선을 위한 국고지원금 1학기 50억500만원, 2학기 36억9,412만원으로 모두 86억9,900만원이 배부되어 각급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음

○강사에 따라서 강사료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시에 많은 아동을 가르치기 어려운 프로그램("예" 바이올린, 첼로 등)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강사와 수준높은 강사 채용에는 그렇지 않은 강사 또는 일시에 많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에 비하여 더 많은 강사료를 주어야 하기 때문임

○또한 과목에 따라서도 강사료에 차이가 있고 예·체능계열의 특집 프로그램을 저렴한 강사료로는 채용을 할 수가 없음

(질 의)

각종 위원회 양산 1년 사이에 15~16개

(답 변)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청 및 산하기관(학교)의 위원회를 파악하여 유사업무에 대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통·폐합과 회의소집 등 활동이 미진한 위원회의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본청 및 산하기관의 위원회 구성 현황 파악과 정비 촉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원회의 폐지 또는 통·폐합을 유도하여 왔으며,

○현재 진행 중인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축소 및 관련 위원회 규정의 정비 시 활동이 미진한 위원회와 유사 업무에 대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폐지 또는 통·폐합할 예정임.

(질 의)

컴퓨터 재활용-학교장 재량권 허용

(답 변)

○노후 컴퓨터(286, 386급)에 대한 재활용은 학교장 책임하에 도서실, 과학실, 양호실, 회의실 등 유효·적절한 장소에 재배치하여 활용토록 지도된 바 있으며,

○만약, 학교에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면 관리전환에 의한 기관간 재배치를 실시하도록 교육청이 중간 매개 역할을 맡아 실시하고 있음.

(질 의)

보고공문 기일(7일간)-접수·보고일자 동일→포상, 해외연수 등(공문생산-접수-발송의 기간문제)

(답 변)

- 각종 보고문서의 보고기일은 보고기관의 범위, 보고내용, 작성의 소요시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보고문서 발송일로부터 최소한 다음날까지 기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 일부 기관(부서)에서 상급기관 및 대외기관의 보고기일에 쫓겨 보고기일을 단축하여 문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산하기관 및 일선 학교에서 보고문서 작성시 애로사항이 있음.
-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고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신속·정확한 보고체제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보고를 억제하여 산하기관 및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 보고심사 시 보고목적 및 보고기일(주기)의 타당성, 서식의 합리성, 기존 자료 활용 가능성, 표본조사 가능성, 공동활용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있으며,
 - 문서심사와 접수시에는 보고요구문서에 대하여 보고심사 여부를 확인하여 미심사 문서에 대하여는 반송 및 접수거부하고 있으며,
 - 업무연락 등에 의한 보고요구 금지 및 공문서 파급 범위제를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보고문서의 생산을 억제하고 있음.
- 아울러 보고내용 및 서식의 연초 일람 배부와 정기보고 일몰제 등을 실시하여 보고업무의 효율성 제고 추진

(질 의)

교직 이수과목에 특활 부전공이 필요한데?

(답 변)

- 현재 부전공 자격연수는 과원교사 해소와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특활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부전공 연수로 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특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지망자들이 교사양성기관 재학 중 특기를 배양할 수 있는 특활 및 부전공 과정을 이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 교사 지망자와 교사양성기관을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교사 신규 채용시 부전공 또는 복수자격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고 있음.

(질 의)

촌지는 사실상 근절되었다.

(답 변)

- 신뢰받는 교직원토 조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

하여 대다수의 교사들은 헌신적이고 열성적으로 학생지도에 힘쓰고 있으나, 일부 교사의 비교육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 '98학년도에도 촌지 없는 학교 만들기, 교원 품위 높이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촌지수수 행위 등이 수그러졌다고 생각되었으나, 아직도 내 자식만을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이기심과 극소수의 교사들에 의해 일어나는 고질적인 병폐로서 지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사료됨.
- '97년 후반부터 촌지 수수행위 관계 민원이 제기된 것은 7건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규정에 의해 의법처리했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근절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 특히 매년 학년초가 되면 촌지에 따른 민원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직원 연수 및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 계도에 힘쓰고, 교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지도대책을 수립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비리 교직자는 사정 차원에서 엄중 문책 할 것이고
-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각적인 제도적 근절대책을 강구할 것임.

(질 의)

국·공·사립학교간 교원 순환근무제를 실시하라

(답 변)

- 국·공·사립학교간 교원 순환근무제는 교육활동의 균형적 발전과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효과적·효율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제도이나
- 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교육감이 임용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하므로 임용권자와 임용절차가 다르며
-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임용된 국·공립학교 교원들이 신분보장, 승진, 기타 근무여건면에서 불리한 사립학교로 전근되기를 원치 않고, 사립학교 법인도 인사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입장이므로 이를 기피하여 현실적으로 본제도의 적극적 추진 및 합리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므로
- 현재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간의 교류는 초등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1:1동수 교

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등의 경우 폐교 또는 학급감축 등 특별한 사유에 따라 사립교원이 공립교원으로 특채가 이루어지는 등 미약하지만 국·공·사립학교간 교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질 의)

학급 담임과 비담임 간의 업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답 변)

- 사회적인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중등학교의 학급 담임교사의 역할이 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학급 소속 학생의 생활지도, 상담활동 등의 업무가 종래와는 달리 전문적인 능력이 없이는 그 소임을 다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담임교사에 비하여 업무량이 많은 것이 현실임
-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학급 담임을 기피하는 경향이 점차로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담임선택제 등과는 별도로 교과지도시수 분담 및 일반업무분장의 조정을 통하여 가능한한 담임교사와 비담임교사의 업무가 안배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 단위 학교내의 인사원칙을 통하여 소속 교사가 학급 담임 업무를 공정하고 적절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급 담임 교사에게 근무성적평정, 각종 포상에 우대하는 등 교원인사에 점차로 그 반영 비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 또한, 공무원 보수체계 개정시 학급 담임 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

(질 의)

강남, 강북의 차별화－교육환경개선 시급함

(답 변)

- 정부에서는 다른 시설부분에 비하여 낙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제정 '96.7.1부터 2000.12.31까지 5개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법에 의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간 교육환경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신·증축 및 개축과 보수비 예산등 시설비 예산을 배정할 때 학급당 학생의 과밀여부, 학교시설의 노후도 및 위험도, 노후시설의 보유면적 등을 근거로 기준을 설정하여 지역간 교육환경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질 의)

65세 정년을 준수하라

(답 변)

- 고경력 교원의 경륜과 전문성을 학교교육에 활용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교원의 정년을 현행대로 유지함이 교직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되나 교원의 정년은 법률사항이므로(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정부와 국회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됨

(질 의)

교장, 교감, 교사 등 결의대회

－군사, 문민, 국민의 정부 동일

(답 변)

- 교원들의 결의대회는 과거 군사정부, 문민정부, 현 국민의 정부에서도 교원들의 의사표현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앞으로는 교원의 품위 유지와 교육적으로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의사표현 방법을 모색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 의)

실업고 입학생 확보 방안

(답 변)

-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을 실업계 고교로 진학을 유도 및 확보하기 위해 고입전형을 위한 중3학생 진로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교장회의[98.9.16(수) 11:00]자료로 활용 하였고,
- 중학교 진학담당 교사 및 학생에게 실업계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정보로 활용 하도록 “나의 선택 열린 미래” 홍보책자(25,000부) 및 “진학지도 자료” (5,000부)를 발간하여 중학교에 배부하였으며,
- 한편, 실업계 고등학교별로 자체 홍보자료를 제작, 교장, 교감, 부장, 학부모 등이 중학교를 방문하여 진로 홍보 및 상담을 하도록 하였음.
- 서울여상 강당에서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감 및 3학년 부장들에게 진학지도 연수('98.9.5 15:00~17:00)를 실시하였고,
- 지역교육청별로 자체 진로지도자료를 제작하여 지역내의 중3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업계 고교의 강당에서 연수['98.10.12(월)~10.17(토)]를 하였으며,
- 한편, 실업교육에 재능이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수혜자('98년도 70억6,900만원 지원 전체학생의 10.1%)의 연차적 확대 및 첨단 실험·실습기자재의 재원 확보 등으로 직업기술교육 내실화에 힘써 신입생 확보

에 더욱 노력하겠음.
(질 의)

급식문제－시설미비
(답 변)

□고등학교 급식확대 추진배경

- 학교급식법('96.12.30)·동법시행규칙('97.5.13)개정 : 62교(중18,고44) 자율실시
- '98.5.6 국무회의시 대통령지시사항 : '98년내

178교 확대(교육부 고교급식방침 및 재정지원 14,770백만원으로 추진)

- '98.2월 교육부주관 고등학교 급식실시 의견조사 : 학생 83.8%, 학부모 81%, 교원 77% 학교 위탁급식 찬성
- 고교생의 57%는 점심은 물론 저녁도 집밖에서 해결하고 있어 학교급식의 필요성 요구

□고등학교 급식확대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년도	계	당초소요예산	확보액	부족예산액
'98	178(25)	47,447	14,770	32,677
'99	84 (3)	32,604	6,710	25,894
계	262(28)	80,051	21,480	58,571

- * ()는 현재 급식실시교중 부분급식 실시학교로 전교생 급식실시를 위하여 확대 계획 및 소요예산에 포함
- * '98년도 소요예산 47,447백만원중 14,770백만원은 건축비로 국고지원으로 추진하고, 부족예산 32,677백만원은 주방설비 및 부대시설비로써 민자유치
- * '99년도 소요예산 32,604백만원에서 건축형태를 변경·계상한 건축비 12,100백만원중 6,710백만원은 '99. 교특 본예산에 확보지원하고, 부족예산 25,894백만원중 건축비 부족예산 5,390백만원은 '99.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주방설비 및 부대시설비 20,504백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임

□급식시설 설치 기본방침

-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급식시설(건축물)만 설치하고, 급식조리기계기구, 식품운반승강기 등 기타 부대시설은 위탁급식운영업체에서 부담
- 재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급식시설 개선 또는 확충하여 실시
- 급식실 신축의 경우 경량구조물(H형강+적벽돌+판넬구조)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증축계획 및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철근콘크리트조로 신축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청소년기의 균형잡힌 영양섭취는 평생건강의 바탕이되므로 학교급식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도모라는 급식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단체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일선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와 학생들을 계도하고

○전교생 급식을 위한 급식비 단가인하 및 학교 위탁급식 확대추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면제, 위탁업체의 시설투자의 사용료면제 등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재건의하는 등 현재 급식 실시상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 대처하여 고교급식 정상화에 노력하겠음

(질 의)

예산집행 체계를 개선하라 ?

(답 변)

- 현재 학교운영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지원예산과 학교자체예산(중·고등학교 : 학교운영지원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예산은 학년별, 부별, 업무의 소관에 따라 1년 단위로 자체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직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편성된 예산의 소관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되는데 단순히

구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 요구서에, 그리고 기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기안에 의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되고, 이때 교감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회계서류(지출결의서 등)에는 교감이 회계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결재하지 않고 도급경비 사무취급자인 서무부장 또는 행정실장이 도급경비 취급공무원인 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고 있음

○ 학교에서 소요되는 물품구입에 대한 예산집행 절차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매하는 방법, 중소기업 제품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방법 및 학교자체에서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음

-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입하는 것은 조달사업에 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및 범위등)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물품(저장품, 비저장품, 단가계약한 물품)을 수요기관인 학교장이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물품을 학교에 공급하고 학교에서는 물품대금을 조달청에 납부함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판로 확대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구매를 증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동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교자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규모가 적은 경우에 한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업체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출하는 방식임

○ 학교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은 각 학교가 공히 필요한 물품 전체 소요량을 파악하여 제시하고 업체간의 공개경쟁을 통하여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단가계약으로 예산을 절약한 실적은 1996년부터 1998년 10월 현재까지 총 37억 6천 7백 만 원이며, 특히 공립초·중·고등학교에서 공히 필요한 체육용품, 의약품, 도서 등의 98년 4/4분기 소요분 및 1999년 소요분 총량을 조사하여 11개 지역교육청별로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음.

○ 현행 학교예산 집행체계는 제도보다는 운영 방

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사안별로 지도·시정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질 의)

교육용 컴퓨터 교실-29대 그대로 방치

(답 변)

○ 실업계고교를 제외한 학교중 “컴퓨터 관련 과목”을 선택·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활용실태를 점검하여 활용 상태가 부진한 학교에 대하여는 -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지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 다른 학교로 관리이전하여 활용토록 지도할 것임.

(질 의)

교사용 컴퓨터 총 52대, 사용가능 10여대

(답 변)

○ 교사용 컴퓨터는 '97년부터 보급한 것으로서 컴퓨터 자체의 성능이나 고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 기타 어떤 사유나 활용능력 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바, 학생 교육용, 교사용 컴퓨터의 활용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유휴 컴퓨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 의)

학교발전기금 문제 : 교장-분임경리관, 운영위원장-경리관, 행정실장-지출원

(답 변)

○ 당초에는 교육부에서 교육부령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장에게 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분임경리관)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였으나, 법제처의 본 규칙에 대한 법제심사 과정에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있어서는 경리관 업무가 고유업무이자 본질적인 업무이므로 학교장에게 위탁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여 당초 입법예고와는 달리 현행처럼 운영위원장이 경리관이 되도록 하였음

○ 그리고 현재는 발전기금제도를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경리관과 분임경리관으로 분리해야 할 만큼 발전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앞으로 발전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그 규모가 커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되면 교육부에 건의해

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의)

실업계 고등학교 진흥 방안

(답 변)

○실업계 고교 학생 유인 체제

- 수업료, 육성회비, 감면 혹은 국고지원
- 동일계 대학 특별전형 제도 부활
- 체계적인 직업교육, 진로상담 실시
-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홍보 강화
- 2부 실업계고교 연차적으로 1부 전환

○시설 확충

- 공동실습소 설치 확대
- 노후 기자재 대체 구매 예산 지원 확대

○산·학 연계교육으로 현장실습 확대

○행정·재정 지원

- 교육부의 직업·기술교육 전문가 임용
- 실험·실습기자재 유지 보수비 예산증액

○교사 양성 및 재교육

- 실업계 전문교과 양성기관(대학) 확대
- 실업계 고교 교사의 복수자격 취득 권고
- 부전공 연수 확대

○교육과정 운영

- 산업체 직무수행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산업체, 직업학교 위탁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내용 및 개편

(질 의)

각종연수가 방학이 아닌 기간에 실시되어 학교 수업에 지장이 있는데?

(답 변)

○자격연수는 방학중, 일반연수 및 직무연수는 학기중에 실시하고 있음.

○학기중에 실시하는 일반연수 및 직무연수는 수업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음.

- 컴퓨터 등 일부 연수는 야간제로 실시하고('98년 640명)
- 심성수련 등 일부 연수는 주말제로 실시하며,
- 나머지 대부분의 연수는 오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 또 PC통신을 활용한 원격연수도 도입하고 있음.

(질 의)

문교통계, 교육행정통계 4개월마다 함-중복

(답 변)

○현재 문교통계 및 교육행정통계는 정확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1회 작성하고 있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들 통계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 교육행정통계의 전산화 추진을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 시행(교육부 주관) 「시·도분산 교육통계 DB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98. 서울교육통계연보를 발간하였으며,
- 문교통계 및 교육행정통계 등 각종 통계자료의 중복작성 방지와 통계자료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할 계획임.

○방대하고 수시로 변동하는 교육통계 자료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계자료에 대한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질 의)

인문계 8월부터 입시준비

-수시입학의 문제점

-입시일정, 입시절차-제도적 검토

-한 학생이 10개대를 지원할 때 들어가는 인력, 경비.

(답 변)

□수시입학의 문제점

○입학 확정자가 많을 경우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 초래

○수시모집의 취지가 기능, 특수재능, 수상경력자 등을 위주로 선발이 제한되어야 하나, 그 대상자가 적어 성적 위주가 될 우려가 있음

○절차가 복잡하고, 현장의 업무량 과다

-추천서 작성,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등 지도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기준 심의 등 회의 과다

□입시일정, 입시절차

○입시일정이 길어 학교 현장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업무량이 많음

○수시입학, 특차, 정시 등 입시절차가 복잡함

-정시의 가, 나, 다, 라, 군을 대다수 학생이 모두 응시해 인력과 응시료 낭비가 우려됨

-학부모들이 군의 개념을 잘 몰라 이중지원 가능성이 있음(특히 분할모집 학교 및 특차 추가 합격자)

□한 학생이 10개대를 지원할 때 들어가는 인력, 경비 과다

○현재 논술고사가 있는 대학의 응시료는 80,000

원 내지 100,000원 정도이고, 논술고사가 없는 대학은 25,000원 정도임

따라서, 지방대학인 경우 교통비, 숙박비 등을 고려할 때 1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질 의)

입학. 졸업 1~2개월 공백→학기 시작 시기 검토

(답 변)

○학교급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2월중 졸업하고 3월 학기 시작으로 겨울 방학을 포함하여 1~2개월의 공백이 있는 것이 현실임

○학기제의 변경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과도기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요망됨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기회있는대로 학기제의 검토를 교육부에 건의하겠음

(朴範珍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봉사활동 관련

(답 변)

○봉사활동 기준시간 문제

- '95, '96학년도에 중학생은 연간 40시간의 봉사활동 실시

- 봉사활동 대상기관의 부족과 학생, 학부모의 이해 부족 등으로 연간 40시간은 과다하다고 판단, '97학년도부터 연간 15시간으로 개선하고 내실있는 봉사활동 실시

- 고등학생은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권장

○봉사활동 내실화를 위한 대책

- '학교계획에 의한 활동'을 중점 추진

- 교사와 학생이 함께 활동하는 '1교사 1봉사 그룹지도제' 권장

- 중학교교육 새물결 운동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봉사활동 관련 책자 발간·보급

- 매년 '중·고등학교 학생봉사활동 운영 방안' 책자를 발간·보급, 2,500여 개소의 봉사활동 대상기관을 각급학교에 안내

- '작은 나눔 큰 기쁨'(1996), '더불어 사는 삶'(1998) 등의 봉사활동 지도 자료를 발간·배부하여 학교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학생봉사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실현에 있으므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

여 소기의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 의)

교장초빙제 관련

- 교장초빙제의 확대 운영과 관련한 교육청의 의견과 대책 및 교장초빙제 운영학교에 대한 사례 연구 결과는?

(답 변)

○'96년9월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에서 처음 교장초빙을 시작하여, 매년 교장초빙 실시 학교를 확대하여 '98년9월1일 현재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4개교, 계 13개교에서 교장초빙제를 실시 중이며,

○현재 교장초빙제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는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지역사회 및 동창회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학교로서, 정년 등으로 교장이 공석이 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동창회 등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의 초빙제 실시 희망을 신청하면, 교육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대상학교를 정하도록 되어 있음.

○초빙학교에서 정하는 교장 초빙요건에는 정년 잔여기간이 4년 이상인 분으로 한정하고 있고, 실제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많지 않으며, 신청 자격이 있는 분이라도 초빙학교가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기피할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가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하여 소신있는 학교경영이 곤란하다고 보고 초빙 응모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교장초빙을 공고하고도 초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초등 2회, 중등 1회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교장초빙제 운영 학교에 대한 사례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적은 없고, 초빙교장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시행한지 얼마 안되어 아직까지 장·단점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형편임.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교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한 교육부의 확대 실시 방침이 정해져 구체적인 방안이 통보되면, 교장초빙제의 시행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개선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젊고 유능한 분들이 초빙교장으로 임용되어 학교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 의)

복수교감 배치기준이 상향조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 변)

○43학급 이상인 학교에 복수교감을 증치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809개교중 255개교이며, 복수교감은 대규모 학교에서 교무와 학생생활지도로 나누어 담당하고, 교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취지에 있음.

-우리 교육청에서는 '96년도에 서울특별시교원단체연합회와의 교섭·협약에서 복수교감 증치기준이 36학급 이상 학교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교육개혁위원회가 '96.8.20 발표한 제3차 교육개혁방안에서도 초·중학교 36학급, 고등학교 30학급 이상의 학교에 복수교감을 증치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나,

-최근의 경제 상황에 따른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특수학급을 제외하고 43학급이 되는 학교에만 복수교감을 증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의 복수교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질 의)

학교발전기금 관련,

-학교발전기금 제도는 교육청 차원의 기준이 없어 학부모의 경쟁심리를 이용한 반강제적인 모금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모금된 학교발전기금의 운용과정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학교발전기금은 지역별, 학교별로 격차가 클 것으로 보여지므로 "교육기회의 평등"이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98.9.15 교육부령이 제정·공포되어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교육부에서 시달된「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을 각급 학교에 통보('98.9.17)하였으며,

○학교발전기금회계 경리관인 학교운영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실장 및 서무부장에 대한 교육 실시('98.9.24~10.1), 교육청 차원의 기준은 본 요령에 모두 내포하여 반강제적인 모금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향후, 장학지도나 감사를 통하여 반강제적인 모금은 할 수 없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

임.

○회계관리요령에는 발전기금을 조성하기에 앞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심의하고, 수립된 계획서는 교직원회의에 공개하고 전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음.

○매회계연도마다 발전기금회계를 결산하고 그 결과를 교직원 및 전학부모에게 통보하고 감독청에 보고토록 하는 등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과 관련하여 민주적이고 투명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학교간의 격차 문제는 본 제도를 1~2년 정도 시행해 보고 학교간의 편차로 "교육기회의 평등"이 침해 받게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학교운영비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은 취합·분석하여 교육부에 건의해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

(金日柱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평가시 우수학교에 특별지원하는 지원금이 나눠먹기식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였는지 그 경위는?

(답 변)

□<학교평가 우수 기관 특별지원금 지급>

○기본 계획

-지급 대상 기관수

• 지역교육청 : 5개교

• 초·중·고 : 96개교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특별지원금 지급(기관수 및 금액은 추후 조정)

-지급 시기 : '98.2

-학교평가 특별지원금 예산 편성

• 초·중학교 : 2,700만원×66개교=17억8,200만원

• 고등학교 : 2,800만원×30개교=8억4,000만원

• 지역교육청 : 3,900만원×5개청=1억9,500만원

계 28억1,700만원

○시행

-우수 기관 선정 방침

• 기본계획에 따라 우수기관 수 및 포상금 지급액을 '학교평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조정

- 우수 기관 및 포상금 지급액 조정 사유
 - ①총점에 의한 학교별 서열화 지양
 - ②학교 현장 변화를 선도할 영역별 교육 활동 우수교의 다양화
 - ③각급 학교장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학교(기관) 확대 건 의

-우수 기관 선정 과정

- 학교평가운영위원회(위원장 : 부교육감, 위 원 : 실·국장 6명)에서 우수기관 수 및 특 별지원금 지급 방안 심의('98.1.22)
- '97. 학교평가 우수기관 및 특별지원금 지급액 결정('98.1.26)

-집행 결과

- 초·중학교 66개교×3개 영역=198개교에 교 당 900만원씩 지급
- 고등학교 30개교×3개 영역=90개교에 교당 930만원씩 지급
- 지역교육청 2개청×5개 영역=10개청+1개청 (영역 : '행·재정적 지원 체제의 효율성' 등 점으로 인해 3개청 포상) 청당 1,770만원씩 지급

(질 의)

복수교감 배치기준이 상향조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43학급 이상인 학교에 복수교감을 증치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809개교중 255개교이며, 복 수교감은 대규모 학교에서 교무와 학생생활지도 로 나누어 담당하고, 교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 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취지에 있음.

-우리 교육청에서는 '96년도에 서울특별시교원 단체연합회와의 교섭·협약에서 복수교감 증치 기준이 36학급 이상 학교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 으며,

-교육개혁위원회가 '96.8.20 발표한 제3차 교육 개혁방안에서도 초·중학교 36학급, 고등학교 30학급 이상의 학교에 복수교감을 증치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나,

-최근의 경제 상황에 따른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특수학급을 제외하고 43학급이 되는 학교 에만 복수교감을 증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의 복수교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질 의)

학교시설물의 상태 평가기준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할 건물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재해위험 건물에 대해 조치가 미흡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사 고이후 안전의식이 고취됨에 따라 학교시설의 안전관리 및 학생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정기 적 또는 수시점검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97년 1월부터는 차량 및 최신장비를 갖춘 "시설안전점검기동반"을 운영하여 학교시설 점검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진단이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있음

○현재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즉각 사용을 금지 해야 할 건물은 D등급 31개 건물, E등급 11개 건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중지 및 긴급 보강조치가 필요한 E급 건물 11개동중 4개 동은 현재 개축공사중에 있으며 1개동은 '99년도 에 개축할 예정이며 2개동은 구조전문가의 진단 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를 완료하여 현재 건물 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용중에 있으며 4개동은 사립학교의 부속시설로서 건물 관리 주체인 학교재단에 철거 또는 개축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보수·보강이 필요한 D급 31개 건물에 대하여도 '98. 6월까지 12동이 조치중이었으나 이후에도 3개동을 추가 보수하였으며 2개동은 '99년도에 개축할 예정이고, 나머지 14개동에 대하여는 지 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계획에 따라 보수·보강 토록 하겠음.

(질 의)

보충수업은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일선 학교에서 반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보충수업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답 변)

○일반계 고등학교의 보충수업 강제 실시와 관련 하여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임.

○보충수업은 '99학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연 차적으로 폐지할 계획임.

○희망학생 희망교과를 대상으로 수준별로 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음.

○보충수업 실시현황 ('98.9월 현재)

- 실시학교 : 185개교(93%)
- 학생의 지도교사 선택제 보충수업 병행 학교 94개교(47%)

○향후 대책

- 학생과 학부모의 보충수업 희망조사 철저 실시
- 성취수준별 반 편성 운영 권장
- 학생의 지도교사 선택제 적극 권장
- 학교운영위원회 (미설치교는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위원회)심의후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
- 관리수당 및 수용비 과다 책정 지양

○장기적 대책

- '9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 폐지
- 학생 중심의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질 의)

'98학년도 일반계 주간고 입학정원을 당초 예정자보다 실지로 441명이 축소되었으므로 탈락자 부모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당초 교육부 보고와 다르게 조정된 경위와 입학정원 확정 절차를 무시한 근거는?

(답 변)

- 우리 교육청에서는 '98학년도부터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방법을 개선하여 '97학년도까지 실시하여 왔던 선발고사를 폐지하고 중학교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음
- 시행 첫해인 '98학년도 신입생 선발시 제도에 대한 일부 학생·학부모의 이해부족으로 탈락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탈락자가 많을 경우 학급 증설이나 학급당 인원을 늘려서라도 이들을 수용하여 탈락자가 지난해 1,902명보다 많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임을 발표
- 탈락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학 희망자의 계열별 지원상황에 따라 일반계 주간고 모집 인원을 조정하고자 이를 발표하지 않았음
- 원서 접수 결과 '98학년도 일반계고 주·야간부 지원자 수는 '97학년도보다 5,700여명이 줄어든 112,060명 이었음
- 이들을 모두 주간고에서 수용할 경우 야간고 38개 학급 1,750명을 모집할 수가 없어 야간 38개 학급 중 주간 전환이 가능한 26개 학급을 주간으로 전환하고, 학급당 인원을 감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급당 인원을 예년보다 2명씩 감축하여 남자는 48명, 여자는 52명으로 결정하고 일반계 주간고

에서 111,619명을 선발, 441명을 탈락 (답 변)

- 탈락자 441명은 일반계 야간부 모집 인원이 12학급 600명이므로 전원 수용이 가능하였음
- 고등학교의 학급 및 학생수는 교육법시행령 제110조제2항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급수 또는 학생수를 증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거 모집인원을 감축(학생수 감축이므로 교육부장관의 인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됨)

(黃祐呂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1. 경기여상 사태 관련

- 경기여상 사태 관련 '학교정상화를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활동내용, 학생들의 수업결손에 대한 조치 및 학교정상화 여부
- 사학재단의 징계권 남발에 대한 정상화 방안은 ?

(답 변)

- 경기여상 사태 관련 '학교정상화를 위한 협의회'란 '97.12.23에 교육청 간부와 학교법인측 대표들이 회합하여 학교정상화를 협의한 사실을 말하며 일정한 기구를 조직한 것은 아님
- 학내 소요사태로 인한 수업결손에 대하여는 전교생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및 학년말 방학을 이용하여 57일간 보충수업으로 결손을 보충하였으며,
- 정기고사를 실시하고 학교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사정하였음.
- 경기여상은 다행히 금년 5월 이후 학내소요가 진정되고 정상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생결원에 대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에 의거 학교법인에서 처리하는 법규적 사항으로 교육청의 지도·감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인별로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법인 측의 처분결과에 불복이 있는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

(李源馥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많은 특목고 학생들이 자퇴·전학하고 있는데 이

에 대한 의견과 2002년 새 대입제도와 관련한 대비책은?

(답 변)

- 대학 입학 전형제도가 비교내신 적용 여부를 대학 자율권으로 넘긴 이후 특목고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내신 적용이 불리하다는 사유로 많은 학생들의 자퇴와 전학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그 인원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
- 2002년 새 대입제도와 관련, 중학교 학생들의 고교 진학시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특히

새 대입제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이들이 대학 진학시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겠음

- 아울러 특목고에서도 설립취지에 맞게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고, 계열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를 강화하겠음

(질 의)

학교소음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방음벽 대신 방음숲, 방음나무벽 설치 방안은?

(답 변)

○소음진동 허용한도 초과학교 현황

학교급별	학 교 수	소음원인별 학교수				비 고
		도 로	철 도	항 공기	건 설	
초	19	12	2	5	-	
중	17	11	-	6	-	
고	18	11	3	4	-	
계	54	34	5	15	-	

○학교소음방지 시설

-소음원인별 방음시설

- 도로소음, 철도소음 : 방음벽
- 항공기소음 : 냉·난방시설

-방음시설의 유형별 비교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도로운영과>

방음시설	장 점	단 점
방 음 벽	-소음저감 효과가 큼 -좁은 공간에 설치 가능하고 공사기간이 짧음 -조립식이므로 유지보수가 간편	-시야차단 및 주위 경관과 부조화 -배기가스와 산성비에 의한 부식
방 음 립	-소음차단을 위한 효과보다 녹지공간의 확보 및 도로가 가려짐에 의한 가시권의 양호 등 심리적인 효과가 큼	-가을·겨울에는 낙엽이 지므로 소음차폐 효과가 현저히 낮아짐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 -방음벽에 비해 소음저감효과가 다소 떨어짐

○향후대책

- 학교소음피해 방지에 따른 방음시설은 학생들의 시각적, 정서적인 면을 감안할 때 현행 방음벽 시설보다 방음림, 방음나무벽 시설 설치가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나,
- 시설 설치 주체인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방음림 설치시 도로와 최소한 20m의 공간이 필요하지만 소음피해 학교의 대부분이 도로와 인접되어 있어 설치 공간이 부족하며,
- 투명방음벽, 나무무늬 방음벽 등 특수재질 사

용 설치시 가격이 높아 예산상의 문제점이 예상됨

- 위원님 건의 사항에 대하여 방음시설 설치 부서(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피해원인 제공자)에 통보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질 의)

TV의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쇼, 드라마, 영화 등)이 교육유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역확일주의) 평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 KBS, MBC, SBS 등에 <항의서한>을 보낸 적이 있는가?

(답 변)

○TV의 청소년 대상 쇼, 드라마, 영화 등의 프로그램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비판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 유해한 환경이 되고 있다는 위원님의 견해에 공감함.

○우리 교육청에서는 폭력 등 학생 사안 위주의 TV 보도를 모니터링하여 학교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학교와 학생을 지도하는 데 노력해 온 관계로 각종 청소년 관련 유해 프로그램(쇼, 드라마, 영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실시하지 못 함.

○앞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방송사에 시정을 요구하겠음.

(金貞淑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과원과목 교사 부전공 연수의 문제점은?

(답 변)

○부전공 자격연수는 과원교사를 해소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학생교과 선택제 시행에 대비하여 '93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제7차 교육과정 시행을 앞 둔 현 시점에서「교사의 질」이란 의미에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교과 지도 능력뿐만 아니라, 학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복수교과 지도 능력을 당연히 포함한다고 보고 있음.

○2~3개월에 양성한 교사가 교과지도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우리 교육청이 교원연수원 또는 각 대학에 위탁 실시하는 부전공 자격연수는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대학의 부전공 과정과 같이 21학점을 약 400시간에 걸쳐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수생들의 적극적 태도 속에 수준 높은 교수진을

갖추고, 어느 대학강의, 어느 연수과정 못지 않게 밀도 있게 운영하고 있음.

○과원과목, 즉 가정, 음악, 미술, 교련, 실업, 제2외국어 교사들로 하여금 윤리, 국어, 수학, 공통사회, 공통과학, 체육, 영어, 전자계산, 기술, 가정 등 과목 중에서 부전공연수를 신청하도록 하여 전공과의 관련성, 대학원 등 선수학습 경험, 희망여부 등을 고려하여 640명의 대상자를 엄선하고 있으며

○학교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면서 조속히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98학년도 후반부터 '99학년도 전반기에 걸쳐 오후제 및 야간제 연수로서 중등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과교육과정 중심의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 부전공 연수자를 대상으로 사전 원격연수 및 사후 보완연수를 실시하여 부전공 교사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힘쓰겠음.

(질 의)

고교급식 확대 및 운영상의 어려움과 문제점이 도출된 상황에서 계속 추진여부와 충분한 검토 없이 교육부의 100%추진계획에 대한 견해는?

(답 변)

○고등학교 급식확대 추진배경

- 학교급식법('96.12.30)·동법시행규칙('97.5.13)개정 : 62교(중18,고44) 자율실시

- '98.5.6 국무회의시 대통령지시사항 : '98년내 178교 확대(교육부 고교급식방침 및 재정지원 14,770백만원으로 추진)

- '98.2월 교육부주관 고등학교 급식실시 의견조사 : 학생 83.8%, 학부모 81%, 교원 77% 학교위탁급식 찬성

• 고교생의 57%는 점심은 물론 저녁도 집밖에서 해결하고 있어 학교급식의 필요성 요구

○고등학교 급식확대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년도	계	당초소요예산	확보액	부족예산액
'98	178(25)	47,447	14,770	32,677
'99	84(3)	32,604	6,710	25,894
계	262(28)	80,051	21,480	58,571

* ()는 현재 급식실시교중 부분급식 실시학교로 전교생 급식실시를 위하여 확대계획 및 소요예산에 포함

* '98년도 소요예산 47,447백만원중 14,770백만원은 건축비로서 국고지원으로 추진하고, 부족예산 32,677백만원은 주방설비 및 부대시설비로서 민자유치 계획

* '99년도 소요예산 32,604백만원에서 건축 형태를 변경·계상한 건축비 12,100백만원 중 6,710백만원은 '99. 교특 본예산에 확보 지원하고, 부족예산 25,894백만원 중 건축비 부족예산 5,390백만원은 '99. 추경에 확보 추진할 계획이며, 주방설비 및 부대시설비 20,504백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과 민자유치 추진계획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청소년기의 균형 잡힌 영양섭취는 평생 건강의 바탕이 되므로 학교급식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도모라는 급식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단체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일선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와 학생들을 계도
- 전교생 급식을 위한 급식비 단가 인하 및 학교위탁급식 확대 촉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면제, 위탁업체의 시설투자 외 사용료 면제 등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재건의하는 등 현재 급식 실시상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 대처하여 고교급식 정상화 노력

(질 의)

재래식 화장실과 지하수 사용 문제

- 수거식 화장실 보유학교 현황 및 개선 계획
-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 5개교에 대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경우 전염병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지하수 사용학교 현황

(’98.10.26 현재)

학교명	위 치	현 황	비고
오곡초	강서구 오곡동 551	- 김포공항 확장계획으로 '99년 폐교예정	공립
우신중	구로구 공동 230	- 상수도 원수관과의 거리 : 15m	사립
우신고		- 지하수 수질 : 양호	
청암고기	노원구 중계동 411-1	- 상수도 원수관과의 거리 : 15m - 지하수 수질 : 양호	사립

※지하수 사용 학교중 태강삼육초등학교는 '98.9.16일자로 상수도 시설 설치(지하수 사용 학교수 : 5교 →4교)

□전염병 위험에 따른 대책

○수질검사 실시

-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종합수질검사와 매분기별 1회 이상 간이수질검사 실시로 수질상태를 양호하게 유지·관리
- 수질검사 결과 4교 모두 적합 판정

○상수도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 해당학교에 상수도 설치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학교측에 권유
- 가능한 한 조속히 재정지원 추진

(질 의)

□수거식 화장실 보유학교 현황 및 개선 계획

- 현재 수거식 화장실을 보유한 학교는 사립학교인 남강중학교와 영훈, 영일고등학교 등 3개교에 3개동의 옥외화장실(12)이 있으며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음.
- 재래식 화장실의 개선은 그 동안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의 주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여 모두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였으며 다만 이들 3개교의 재래식 화장실은 별도 건물로 학교에서 조기 축구회나 운동부 사용 등을 이유로 철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며,
- 이들 학교의 수거식 화장실에 대하여는 영훈고등학교와 영일고등학교는 옥외화장실의 필요성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할 계획에 있고, 남강중학교에 대해서는 철거하거나 학교에서 계속 필요하다면 개량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겠음.

-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 5개교에 대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경우 전염병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학교폭력의 실상과 대책

(답 변)

(다음 페이지에 계속)

□ 학교폭력 실태구분

구분 학교별	금품피해			폭행피해			집단괴롭힘	
	학생수		피해액 (천원)	학생수		피해 횟수		
	교내	교외		교내	교외		피해자수	가해자수
초등학교	272	3,835	11,726	377	1,914	2,264	.	.
중 학교	1,192	7,410	24,950	861	1,746	2,250	.	.
고등학교	480	2,497	37,061	500	845	1,445	.	.
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	.

※ 위 자료는 '98년 1~6월말 기간을 대상으로 한 학교 현장의 설문조사 결과이며 '97년도 동기 금품피해 및 폭행피해자수 총계는 각각 20,084명, 9,270명으로 '98년도에 들어와 눈에 띄게 감소 추세를 보임

□ 학교폭력 예방대책

○ 폭력예방 기반 조성

- 남녀 혼성반 편성·운영

• 시범학교 지정·운영 : 29교(중 11, 고 18)

• '98 혼성반 편성·운영 현황

구분	총학교수	공학학교수	혼성반운영학교수	운영비율	비고 ('97년도)
중	357	199	199	100%	90%
고	278	84	81	96.4%	65%

- 일몰전 귀가운동 전개

- 모든 방과 후 교육활동은 일몰시간(여름 19:00, 겨울 18:00)이내에 종료
- 단, 야간 자율학습의 경우 희망학생에 한해 21:00까지만 실시

- 사회 동참 분위기 조성

-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 학교별 2회, 86,349명 참가
- 청소년 선도방송 : 4개 방송사, 매일 2분씩 방송

- 예방 중심 성교육 강화

- 성교육 시간 확보·운영(초 5~고1:10시간 정도, 고2~3:5시간 정도)
- 성교육 지도서 '성과 행복' 개발·보급
- 시범학교 운영 : 중·고 각 1교

○ 상담활동 강화

-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 12개소(본청 1, 지역청 11)
(상담실적 : 29,672명 <'98-8월말 기준, '97-연간 27,090명>)
- 특별상담의 날 운영 : '98. 6월부터 시행,

센터별 월 2회 실시

- 학교상담활동의 강화

- 전교원의 학생상담활동의 생활화
- 학생 희망교사와의 상담실시 : 학기당 1회 이상
- '오후 상담전담교사제' 운영
-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 279개소, 1,122명('97: 236개소, 1,080명)
- 상담실적 : 133,022명('98.3~6실적, '97년간 244,096명)

○ 수련활동 및 여가 시간 학생활동 활성화

- 수련장 대폭 확충 및 수련활동 참여 활성화
- 수련장(야영장 포함) 확충 및 여건 조성
- 제2야영장 신설 추진 : 500명 수용 규모
- 대전임해수련장 신설 추진 : 500명 수용 규모('99.7 개장 목표)
- 서울학생교육원 수용 시설 확충 추진 : 176명→500명
- 수련활동 참여 활성화 : 초·중·고 학교급별 재학 중 1회 이상 참가 의무화
- 공공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 청소년 건전문화 활동 적극 지원
 - 청소년 주말 문화교실 운영 : 15개소(지역 청당 1, 본청 4)
 - 『어울마당』 등 문화행사 활성화 : 각급 학교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
 - 『서울학생 동아리 한마당』 행사 개최('9. 11. 3~7)
 - 『움직이는 시간』 운영의 학교별 특성화
- 학생봉사활동의 생활화
 - 학교계획에 의한 활동
 - 학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학생이 그 중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유도
 - 개인계획에 의한 활동
 -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봉사활동 대상기관을 안내하여 안정적 활동기반 조성
 - 1교사 1봉사 그룹지도제 운영 : 11,128 그룹, 230,552명
- 부적응학생(복교생 포함) 지도대책의 다양화
 - 부적응학생 적응교육
 - 서울학생교육원 적응교육(120명)
 - 지역교육청 주관 적응교육(2,200명)
 - 청소년상담센터 적응교육(719명)
 - 청소년사랑실천시민연합 위탁 적응교육(600명)
 - 단위학교 주관 적응교육 : 학교별 실시
 - 학교폭력예방·근절 활동의 지속적 전개
 - 개별상담 등 담임 중심 생활지도 강화
 - 1교사 1학생 결연지도
 - 중퇴생 복교 추진 : 2,208명('97-3,625명)
 - 교·내외 취약지역 순회지도 : 순회조 편성·운영
 - 학교폭력신고 전용전화 설치·운영 : 학교,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등
 - 그린포스트 카드(학교폭력 피해 신고엽서) 제 시범 운영(시범지역 및 학교·성동교육청 관내 중·고 35교<'97 중 : 2개교 운영>, 신고엽서 처리 실적 : 308건<'98-8월말 현재, 97-연간 8건>)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체계 강화
 - 서울시청 : 학교폭력예방지원협의회 운영 협조
 - 검찰청 :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공조, 『준법우수학교 표창』운영 협조

- 경찰청 :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운영 협조
 - 청소년 취약지역 합동순회지도 실시
- 청소년사랑실천시민연합 : 부적응학생 적응교육 위탁
- 서울 YWCA 청소년회관 : 학교폭력 신고엽서제 공동 운영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부적응학생 적응교육 및 학교폭력 신고엽서제 운영 협조

(金顯煜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대책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대책?
 -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정화구역내 계속해서 남아 있는 이유?
 -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등 정화조치 사항은?
 - 동작교육청 관내 액화·고압가스 저장소 잔존에 따른 대형사고 위험 대책은?

(답 변)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대책
 - 교내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
 - 교사 및 학부모 교통 봉사대 활용을 통한 등·하교 교통지도
 - 현장 학습시 안전교육 철저
 - 교내 급식 관련 위생 관리 철저
 -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많은 놀이(기절놀이, 말뚝박기, 생일빵놀이 등) 안하기 지도
 - 한국 도시가스와 연계한 가스 안전 실습 지도
-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정화구역내 계속해서 남아 있는 이유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정비 현황

(’98.9.1기준)

최 초 정비대상 업 소 수	정 화 된 업 소 수	잔 여 업 소 수		
		’95.12.31까지 이전·폐쇄토록 규정된 업소수	’98.12.31까지 이전·폐쇄토록 규정된 업소수	계
2,864	1,981	726	157	883
100%	69.2%	25.3%	5.5%	30.8%

○문제점(미이전·폐쇄 사유)

- 유해업소의 대부분이 학교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허가된 업소로서 업주들의 기득권 주장과 이전·폐쇄에 따른 법적 보상 요구에 대한 보상책이 없음 (인·허가 부서)
- 학교보건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시·도지사가 유해업소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시설의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유해업소 정화 조치 권한을 갖고 있는 인·허가·신고 처리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 (법집행 강행, 업종전환에 따른 행정편의 제공 등) 미흡.
- 기존 유해업소 업주의 이전·폐쇄 불응.
- 교육청 주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유관기관(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및 민간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범시행 이전의 기존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등 정화조치 사항

-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요청 : 연 2회 이상
- 학교주변 유해업소 중점 단속
 - 교육청 주관 : 경찰, 행정구청, 해당지역 교사 합동으로 월2회 실시
 - 검찰청 주관 :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과 연계 실시
 - 경찰서 및 구청 주관 : 해당 지역교육청별 유기적인 협조하에 인력 지원
 - 청소년보호법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 협조 : 청소년보호위원회, YWCA, YMCA등을 통한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 및 단속 강화
 - ※불법퇴폐·변태 영업행위 및 교육상 저해 행위 사전 봉쇄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 관계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3조

- 운영시기 : ’98년 8월부터

- 구 성 : 초·중·고별 교사 및 학부모

- 주요활동

-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고발
- 학교 폭력예방 등 청소년보호·선도
- 신문·방송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

○학교주변 신설 유해업소 사전규제 : 지역교육청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로 근원적 차단

○학교주변 유해업소 계도 :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로 지정하여 유해업주 계도.

(질 의)

□동작교육청 관내 액화·고압가스 저장소 잔존에 따른 대형사고 위험 대책

(답 변)

○업종현황

- 업 종 : 고압가스 저장소

- 관리자 : 노량진정수사업소장

- 소재지 : 동작구 노량진 본동 258-1(노량진 수원지)

- 정화구역 해당학교 : 노들유치원(절대정화구역 : 40M)

○조치결과 : ’98. 10. 15 장소이전(이전장소 : 노량진동 2-3, 한국냉장 인근지역)

(鄭均桓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교육자치 관련

(답 변)

○지방교육자치제와 관련한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므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질 의)

교원임용제외자 구제방안
 - '85년부터 '98년 중 보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되어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임용후보자와 그 구제 방안은?

(답 변)

-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국립사범대학 출신자의 우선임용에 관한 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위헌 선고되었음.
- 이에 따라 1991년부터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하게 되었고, 임용고사를 거쳐 임용한 이후에는 우리 교육청의 보안심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부적격 판정에 의하여 임용되지 못한 임용후보자는 없음.
- 다만 1990년 위헌 선고 이전에 당시 교육법 제

77조의 각호의 1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을 보류하고 있던 중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에 의하여 임용되지 못한 임용후보자는 25명으로 파악되었고 그 명단은 <아래>와 같음.

- 참고로 위헌 선고 이후에는 병역의무수행을 위해 임용유예된 임용후보자 중 임용순위 도과자만을 구제하였으며, 당시 정당한 사유로 임용연기 중인 임용후보자까지도 구제되지 못한 상황임.
- 이들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구제방법을 고려하였으나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임 용 제 외 자 현 황
 서울특별시교육청

연번	연도별	성 명	출신대학	임 용 제 외 사 유
1	1988	정광서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87 선고유예 등)
2	1988	정규옥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86 집행유예 등)
3	1989	진영효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81 징역, '84 징역 등)
4	1989	김선숙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86 집행유예 등)
5	1989	이병득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87 집행유예 등)
6	1989	김재영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86 집행유예 등)
7	1989	주태진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81 기소유예, 징역 등)
8	1989	권순선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87 집행유예 등)
9	1989	신미순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87 징역 등)
10	1989	김종환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86 징역 등)
11	1989	정민섭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87 집행유예 등)
12	1989	백은숙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88 지명수배 등)
13	1989	오효환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87 집행유예 등)
14	1989	홍종언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78 징역 등)
15	1989	이용철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89 신규임용면접항의)
16	1990	정현대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85 집행유예 등)
17	1990	오진숙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87 집행유예 등)
18	1990	박형오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86 폭력행위, 집시법)
19	1990	이용배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86 집행유예 등)
20	1990	김명근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86 징역 등)
21	1990	이태만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86 징역 등)
22	1990	윤소영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83 집행유예 등)
23	1990	권오성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86 집시법 위반 등)
24	1990	이병우	서울사대	교육법 제77조('88 집행유예 등)
25	1990	이기정	서울사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질 의)

IMF 실적가장 중고생자녀 학비지원사업 지속 방안

- 학비지원사업에 따른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 결식아동대책의 구체적 계획과 가정 사정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답 변)

□ 학비지원 사업에 따른 재원확보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 IMF 이후 가장 실직으로 학비를 못내는 중·고생이 늘고 이에 따라 가출 청소년 수도 늘고 있음. (서울가정법원의 청소년범죄 발생 비율이 전년대비 20%정도 증가되고 있음 : 한겨레 4월22일자)
- 교육부에서는 경제사정 곤란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서 '98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실직자 자녀학비지원 교부금 1,000억원을 확보하여 3/4분기부터 학비감면지원을 하고 있음
-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민생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사례로서 민생안정 측면 뿐 아니라 교육의 기본윤리 측면에서도 '99학년도에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사업임
- 만약 이 사업이 중단될 때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 및 비행청소년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9월4일 예산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99년도에는 국고지원이 중단되고 서울시교육청 예산만으로 학비지원사업이 충당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음
- '99학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약 9% 인상하는 방안으로 '98년도와 같은 수준인 15%의 학비감면을 하는 경우를 산출한 결과는 학생수의 감소등으로 수업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98년도 대비 601억원(공립 : 270억, 사립 : 331억)의 수업료 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산출됨
- 국고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의존수입에 88%를 의존하고 있고 자체수입재원이 12%에 불과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원구조로는 '98년도와 같은 수준의 학비지원이 어려운 형편임
- 지방교육청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잘 알고 있는 교육부에서는 학비지원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국고지원금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고지원

금이 확보되어야 '98년도와 같은 수준의 학비감면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접적인 학비지원의 방법 이외에 장학재단 등의 장학금 적극유치와 급우돕기운동의 활성화 등을 통한 학비지원에 더 한층 노력하겠음

□ 결식아동 대책의 구체적 계획과 가정사정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

- 결식학생 중식지원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결손가정, 실직자 자녀등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중식을 지원하여 오후수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위화감 해소 및 학생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 현재 중식지원 대상은 초등학생이 10,770명, 중학생이 2,811명, 고등학생이 3,838명으로 총 17,419명임
- 이중 3,349명(초등학생 2,517명, 중학생 595명, 고등학생 237명)은 한국선명회, 자치구 여성단체연합회, 종교단체 등 외부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우리청 자체 예산 34억3천6백46만4천원, 외부단체 지원예산이 7억3천3백99만6천원 등 합계 41억7천46만원이며
- 교육부로부터 추가 지원액 2억1천5백87만4천원과 서울교원단체연합회에서 1억4천만원과 극동방송에서 4천1백만원과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들의 성금 5백11만원, 교원연수원 알뜰매장 수익금 6백35만8천원으로 결식학생을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지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또한 방학중의 결식학생 지원은 시민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계획으로 추진되어 대상학생의 거주지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협조 추진중에 있음
- 가정사정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학생들에 대한 생활 대책
 - 담임, 상담교사가 주기적으로 상담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
 - 교직원이나 지역사회 인사와 결연주선
 - 학부모와 연계하여 문제요인 해소 지도
 -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불건전업소 취업 예방지도 등

(鄭東泳委員 질의에 대한답변)

새물결 운동 관련

-예산 집행 과정을 철저히 재심의하고, 일선학교에서 내실있는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재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실천 가능한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 견해는?

(답 변)

○「중학교교육 새물결 운동」의 추진

-중학교의 교육방법 혁신을 위한 교육개혁 운동임

- 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별 1교씩 11개 교육청에 총 55교의 선도(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하여 357교의 중학교를 선도하고 있음

-선도(거점)학교의 예산 지원

- 과제의 특성에 따라, 3,000만원~7,000만원 운영비 지원
- 예산의 용도: 관내 모든 중학교를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과 보급, 교원·학부모 연수 실시

○「중학교교육 새물결 운동」선도(거점)학교 운영 내실화 대책

-선도(거점)학교에 '99. 2월말까지의 운영 계획서와 실행 예산서를 작성·제출케 하여, 협의·지도

-최소한의 소요 예산을 제외한 잉여분은 2차년도의 동 과제 추진에 사용토록 하여 예산 낭비 요인 제거

※협의회비, 협의회수당 등 최대한 억제

-장학력을 집중하여 선도(거점)학교 운영 내실화 지도

○과제별 모범 사례의 발굴과 일반화

-과제별 모범 사례집 발간·보급

(질 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양성 관련

-상담교사의 고령, 수업 등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기 어려운 바 학교폭력 예방대책 차원의 외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답 변)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상담실과 외부 상담기관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은 매우 바

람직한 일이므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임

○그러나 청소년대화의 광장, 시립아동상담소, 가양 4동 종합사회복지관 등 무료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만한 곳은 연간 자체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고, 민간단체인 경우 별도의 경비를 지불해야 하므로 연중 부적응학생이 수시로 발생·지도해야 하는 일선학교와 상호 연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 및 학부모의 정서가 학교 밖의 기관에 학생을 위탁교육 시키는 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남아 있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보완키 위해 우리 교육청 부설 12개소 청소년상담센터에는 금년부터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등 상담전문 인력과 정신과의사로 구성된 특별상담 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학교 상담실과 연계, 상담센터 또는 학교를 방문하는 등 9월말 현재 34,864건의 일반상담과 1,000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에게 사안별로 각종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질 의)

특수교육 분야 관련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전 지역청에 확대 배치해 특수교육의 장학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의향은?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용대책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수학교 설립추진현황 및 개교에 지장은 없는지?

-특수학급 교육대상 학생의 연계교육체제 확립과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방안 및 미진학, 미취학 학생에 대한 대책은?

(답 변)

○우리 교육청의 특수교육 전문직은 초등교육 전문직 정원에서 배정하여 장학관 1, 장학사 6, 계 7명으로 1인당 95명의 교원을 담당하고 있으나, 초등 전문직은 장학관 14, 장학사 111, 계 125명으로 1인당 175명의 교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문직 정원 부족으로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를 6개 교육청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어, 각 지역교육청 장학사 사무분장시 특수교육 업무를 배정토록 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배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전문직 정원의 증원을 요청하는 등 정원 확보에 노력하겠음.

초등학교의 경우 98년도에는 79명의 특수교육

전공 교사를 신규임용하여 자격증 소지자 확보 목표 70%를 초과하여 72%를 확보하였고 현재 초등학교의 475개 특수학급에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342명, 특수교육 일반연수 이수자 85명, 기타 48명이 담당하고 있어 99학년도에는 예년보다 더 많은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무자격 교사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한편 공·사립 특수학교의 경우 753명의 교원중 특수교육 자격증 미소지자는 공립 18명, 사립 22명(총 40명)으로 특수교사 양성대학에서 양성되지 않는 교과목으로 직업교육 관련 교사와 예·체능 교사임.

이러한 특수학교의 특수교육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 전공을 위한 교육대학원 진학을 적극 권장하고, 특수교육 일반연수에 우선 배정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을 충분히 갖추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음.

○중등 특수학급 담당 교사는 약시학급 6개 학급만 일반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자격 소지자가 담당하고 있고, 유치원은 6개 학급을 신설 하였으나, 정원 배정을 받지 못한 상태임.

초등 특수학급 담당교사는 특수교육 자격 소지자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수의 특수학급을 일시에 설치한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유자격 교사를 확보해 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선 일반교사로서 시험 검정에 의해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게 된 교사 및 60시간의 특수교육 연수 이수자를 확보하여 특수교육을 담당케 하였으며, 특수교육 전공 교사를 해마다 40-50명씩 선발 임용해 왔음.

○특수교육 현황

-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중도장애로 특수학교 취학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 9,845명(적령인구대비 0.46%)

- 특수학교 현황

- 학교수 : 22교(국립 2교, 공립 2교, 사립 18교)
- 학생수 : 5,443명(국립 596명, 공립 743명, 사립 4,104명)
- 학급수 : 511학급(국립 64학급, 공립 73학급, 사립 374학급)

※파견학급 및 임시학급 현황

- 파견학급 : 5개시설 25학급, 207명

- 임시학급 : 3개교 3학급, 73명

- 특수학교 설립추진 현황('94년도 계획 수립)

- '97 개교 : 2교【공립 1교(정문), 사립 1교(밀알)】
- '99 개교예정 : 1교【공립 1교(광진)】
- 2000 개교예정 : 4교【공립 4교(정혜, 지애, 정민, 정원)】
- 2001 개교예정 : 1교【공립 1교(신답)】

- 신설하는 특수학교 대부분이 초기에는 지역주민 및 행정기관의 심한 반대에 의해 공사방해 등으로 상당기간 공사가 지연된 바 있으나, 현장방문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이해·설득 노력으로 현재는 민원에 의한 설립의 지연은 없음

- 다만,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학교설립에 소요되는 '99년도 시설비예산 확보가 불투명하여 개교가 다소 지연될 예정임.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도장애 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665개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초등 3,880여명, 중등 1,170여명, 총 5,050여명을 특수학급에서 교육하고 있으며, 초등에 비해 중학교 과정의 특수학급 학생수가 많이 감소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중학교에서 대상 학생수가 줄어든 이유로는 초등학교는 6개 학년에서 특수학급 교육대상 아동을 선정하지만 중학교는 3개 학년뿐이고, 중학교 진학시에는 초등학교에서 6년 동안의 특수교육을 받은 후 장애 상태의 호전 및 학습능력 등이 많이 향상되어 일반 학생들과 함께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가 많은 편이며, 또, 성장기의 자녀가 특수학급에 입학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학부모의 그릇된 생각과 남들의 이목(장애인이라는 낙인)을 두려워 하는 심리상태에 기인하여 특수학급 교육을 꺼리고 있으며,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의 부족에 따른 장학지도 활동의 미흡 등으로 특수학급 운영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임.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먼저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이 미배치된 지역교육청과 해당부서에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을 확대 배치하여, 장학지도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장애 상태에 알맞은 개별화교육 실시 등 특수학급 운영을 내실화하고, 특수학급 교사들과 일반교원들에 대한 특수교육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지도 자질을 향상시키며,

장애학생 학부모들에게도 특수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특수학급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개선시켜 나감으로 특수학급 교육기회제공을 확대하는 등 특수학급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

또한, 특수학급 교육의 연계지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에도 특수학급을 매년 확대 설치하여, 경도의 특수교육대상자가 계속하여 자기 능력에 알맞은 개별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음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취업 현황은

'98년 졸업생 335명 중 69명(21%)이 취업하였고 '97년보다 취업률(109명, 34%)이 저조한 것은 IMF 사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됨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학생들의 소질 계발을 위한 능력별 개별화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장학지도를 강화하고, 취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 중심으로 직업기능을 신장시키고 시설여건이 허락하는 특수학교에 직업교육 심화과정인 전공과를 점차 늘려 고등부 졸업생들의 직업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취업 현장과의 유대강화와 업체개발 및 지원고용 등을 통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도록 지도하며, 취업 후에도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출신 특수학교를 통하여 사후 지도도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음. 나아가, 특수교사 양성대학의 직업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건의하여 일선 특수학교 현장에 필요한 직업교육 특수교사 양성 등 직업 담당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직업교육의 내실화에도 힘쓰도록 할 계획임.

○특수학교 고등부과정까지 졸업하고도 취업이나 진학을 하지 못한 중증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룹홈이나 보호자립작업장, 장애인이용복지관, 장애인직업훈련원 등의 시설을 확충하여 이들을 장기적으로 보호·수용해야 하므로 관계부처(보건복지부, 노동부)에 계속 건의중이며,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 해당 부처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 의)

일선학교 멀티미디어 기자재 활용 실적 저조
-멀티미디어 기자재(교단선진화 기기)를 특별교실

등 실제 활용 가능한 곳으로의 재배치할 의향은?
-멀티미디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예산 및 집행 실적은?

-멀티미디어 학습효과 제고를 위한 학교전산망 우선 구축할 의향은?

(답 변)

○교단선진화 사업은 초·중·고교의 모든 일반교실에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 교수-학습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당 사업은 당초 '97년부터 '99년까지 보급 완성할 계획이었으나,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2002년까지 3년간 연장됨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이미 설치한 교단선진화 기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과 교실이나 특별교실에 재배치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98년10월22일자로 조치하였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의 교사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자체개발하여(12편), 소프트웨어를 보급할 계획이며, 또한, 민간업체가 개발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초·중·고교 1천152교에 학교당 50만원씩 총5억7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음.

-소프트웨어 개발 예산 : 133,680천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집행 실적 : 576,000천원
계709,680천원

○학교전산망 구축은 학교내의 컴퓨터를 LAN으로 연결하여 인터넷을 연동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전산망에 연결할 컴퓨터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금년까지는 통신망 연결을 위한 교육용, 교원용컴퓨터 보급에 주력하였으나, '99년부터는 학교전산망구축 등 통신망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 인터넷활용을 비롯한 교육정보 유통에 적극 노력하겠음.

(질 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들의 잡무부담 줄여야,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일선 교사들의 잡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기간제 교사의 충원율이 떨어지는 이유와 이로 인하여 교사들의 업무부담 증가로 학교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답 변)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수업외 근무부담

- 경감 대책을 마련하여 이미 시행해오고 있으며,
 - 공문서 유통량을 줄이고자 공문발송을 최대한 억제·노력중이며, 96년도 공문 발송 건수가 6,895건, 97년에 6,733건으로 162건 줄였으며, 98년도에도 계속 감축할 계획이며,
 - 교내 교무 행정 위임 처리 제도를 적극 권장하여 교사들이 간단한 업무(성적, 학생 전출입)는 결재과정을 단순화 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또한 교내 업무분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행정실이나 서무실로 교원 상호간에도 조정하여 교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중이 있으며
 - 그밖에 교무실 사무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배치 등의 조치를 이미 시행했음.
 - 또한 모든 교무업무를 전산화하는 일에 노력하고 교사에게 개인용 PC 공급, 전산화 프로그램 배부를 적극 시행하여, 수업외 근무부담을 줄여 교사가 학생 지도에 전념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음.
 -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 근거에 따라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1월 이상의 휴가 또는 신규채용 대상자가 없을 때, 특정교과를 한 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규 교원의 후임으로 정원내 결원보충을 위하여 채용하는 교사임
 - 또한 기간제교사에게는 책임이 중한 직위에 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담임 등의 업무를 맡기기 곤란함.
 - 따라서 전체교원에 대한 기간제교사의 임용비율이 높을수록 교육의 질과 교사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며, 그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정원내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임.
- (질 의)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추진 방향은?
- (답 변)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사립학교는 367개교 (초 39, 중 111, 고 199, 특수 18)로 이 중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학교는 3개교임. (화랑초,금성초,한가람고).
 - 이처럼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낮은 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많은 부분이 학교법인 이

- 사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점과 학교운영위원회 설립이 '학교경영에 대한 간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학의 설립 주체는 학교법인이므로 설립과 관련 없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를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사학의 건학 이념 구현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에 있음.
 -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교육적인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방과후 교육활동의 국고 지원이 제외된 점, 열악한 사립학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공립학교 학운위 설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충분한 실험기간을 거치지 않고 전체 학교로 시행함으로써 발생된 운영위원 상호간 갈등, 학부모위원·지역위원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사립학교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서 충분한 실험을 거쳐야 함.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사립학교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설치 하되, 사립학교의 특성에 맞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된 후에 단계적으로 전체 학교로 확대되어야 함.
- (威鍾漢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 (질 의)
- 교육계의 사기저하 문제는?
- (답 변)
- 작년 말부터 시작된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부재정과 함께 우리 서울교육의 재정 및 교사, 공무원들의 가정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사기 저하와 관련하여 1998.10.10일자로 「안정된 교직수행을 위한 협조요청」의 공문과 「존경하는 서울교육 가족 여러분」의 교육감의 공한을 교사 전체에게 발송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를 당부하였음
 -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약·절감하여 교원의 봉급재원 확보 등 재정적 지원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우리 서울교육 가족은 시대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교육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잠재력으로 제2건국을 앞당길 수 있는 확고한 신념으로

교육의 내실을 위한 안정된 교직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

- 우리 교육가족은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안정적인 직장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사회가 발전하려면 교사가 존경받는 풍토가 이루어지고 교사가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하므로 사기진작 방안을 계속 연구하여 적극 추진하겠음.

(질 의)

“부자학교”와 “가난한학교” 관련,

학교운영에 있어 “부자학교”와 “가난한학교”로 양극화 현상이 예상되는 현재의 교육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교육여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있는지?

(답 변)

○'98.9.15부터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학교별 기금조성 실적이나,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음. 본 제도를 1년 정도 시행해보면 학교별 실적을 파악할 수 있어 문제점도 표출될 것으로 생각됨.

○지역별, 학교별로 균등하게 발전기금이 조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립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어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으나, 사립학교에서는 종전의 자발적인 기부금품제도가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전체 사립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마련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게 되면 모든 사립학교에서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됨.

○앞으로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1~2년정도 운영해보고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지역간, 학교간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학교운영비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그리고 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은 취합·분석하여 교육부에 건의해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

(질 의)

민간참여 컴퓨터 보급 및 교육의 문제점

-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과 대안

- 민간참여 컴퓨터 보급 및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책
- 민간참여 컴퓨터 교육에서 방과 후 수요자 중심 교육활동의 질적 제고 방안

(답 변)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모든 국민이 각종 생활정보를 비롯한 첨단 지식·정보를 보다 빨리 습득케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위한 정보화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함.

○정보화 교육의 하드웨어 보급과 활용교육이 조화있게 병행되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하고,

○교육기자재의 운용과 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추진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만 정보화 교육이 성공할 것으로 판단함.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뛰어 넘을 수 없음.」

따라서 우수강사를 채용 질 높은 교육을 하려면 현재 강사채용 및 수당을 업체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강사 채용권과 강사수당을 학교에서 정하는 방안·강구

○민간참여 업체 선정시,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차후 보상 문제 등 상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학생 교육경험이 많은 업체, 교육적 사명감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수준높은 강사채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수준별 단계적 지도, 학부모의 부담경감, 참여업체의 교육개발 자구노력이 지속된다면, 수강학생 감소문제는 해소될 것임.

□학생들로부터 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조사하여 교육강사를 학교가 선정하는 방안

○교육부가 민간참여에 필요한 교육영역별, 내용별, 수준별 교육강사를 선발하여 강사리스트를 학교에 제공하는 방안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와 참여업체와의 긴밀한 검토와 협의 운영체제 구축

(질 의)

고교생들의 독서강화를 위한 ‘학년별 필독도서 선정’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

(답 변)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년별 필독도서 선정’에 관한 추진계획이 없음

○‘학년별 필독도서 선정’은 각급 학교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도서선정위원회, 교과별 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로 선정, 운영토록 하고 있음.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경상운영비의 5% 예산 확보, 도서실 확충, 양서 읽기 지도, 독서행사 활성화,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역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도 등을 하고 있음.

(질 의)

문화의 세기에 대비한 전통문화 교육 강화 관련 (답 변)

○전통문화의 가치 및 의미

-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 민족공동체의 동질성 회복
- 우리 민족의 삶과 역사의 의미 이해

○초·중·고등학교별 전통문화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 초등학교
 - 도덕, 국어, 사회,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관련 교과에서 지도
 - 교육내용은 전통예절, 전래동화, 시조, 역사, 민속놀이, 전통예술작품 감상 등

-중·고등학교

- 도덕(윤리), 국어, 사회, 가정·기술, 예·체능 등의 교과에서 지도
- 교육내용은 역사, 언어생활, 의식주생활, 전통예절, 전통예술, 종교, 민속놀이, 문화재 등

○현장중심, 체험중심의 전통문화 교육대책

- 각급 학교에 학교 실정에 따라 예절실 설치·

운영

-역사기행, 문화재 탐방 등 테마 중심의 현장 학습 권장

-전통문화 관련 특별활동반 운영

-노인정 방문활동으로 경로효친 정신 앙양

-학교 계획에 의한 전통예절 교육, 전통민속놀이 지도

-‘관혼상제’의 가족행사에 참여, 미풍양속 계승

○일본문화 개방에 따른 청소년보호 대책

-일본문화에 기여한 우리 문화 알리기,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정통성 이해 등 관련교과 교육을 강화하여 외래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비판적 수용 능력 함양

-학교와 가정의 협력지도 체제 구축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및 학생 출입 예방지도

○일본의 패권주의적 전통문화 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홍익인간의 이념에 기초한 인간존중의 문화적 전통 계승

-체험학습을 통한 경로효친의 정신 함양

-우리 문화의 독창성, 우수성 교육을 통한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 고취

(질 의)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주변환경 및 교육환경 정화를 위한 대책은?

(답 변)

□현황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정비 현황

(’98.9.1기준)

최 초 정비대상 업 소 수	정 화 된 업 소 수	잔 여 업 소 수		
		’95.12.31까지 이전·폐쇄토록 규정된 업소수	’98.12.31까지 이전·폐쇄토록 규정된 업소수	계
2,864	1,981	726	157	883
100%	69.2%	25.3%	5.5%	30.8%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증가 사유

-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는 인·허가전에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나

-만화방, 비디오방, 전화방 등 대부분의 업종이 인·허가후 사후 규제에 인하여 유해업소 증가

□문제점(미이전·폐쇄 사유)

○유해업소의 대부분이 학교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허가된 업소로서 업주들의 기득권 주장과 이전·폐쇄에 따른 법적 보상 요구에 대한 보상책이 없음 (인·허가 부서)

○ 학교보건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시·도지사가 유해업소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시설의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유해업소 정화조치 권한을 갖고 있는 인·허가·신고 처리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법집행 강행, 업종전환에 따른 행정편의 제공 등) 미흡.

○ 기존 유해업소 업주의 이전·폐쇄 불응.

○ 교육청 주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유관기관(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및 민간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시행 이전의 기존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 대책

○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요청 : 연 2회 이상

○ 학교주변 유해업소 중점 단속

- 교육청 주관 : 경찰, 행정구청, 해당지역 교사 합동으로 월2회 실시

- 검찰청 주관 :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과 연계 실시

- 경찰서 및 구청 주관 : 해당 지역교육청별 유기적인 협조하에 인력 지원

- 청소년보호법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 협조 : 청소년보호위원회, YWCA, YMCA등을 통한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 및 단속 강화

※ 불법퇴폐·변태 영업행위 및 교육상 저해 행위 사전 봉쇄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 관계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3조

- 운영시기 : '98년 8월부터

- 구성 : 초·중·고별 교사 및 학부모

- 주요활동

-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고발
- 학교 폭력예방 등 청소년보호·선도
- 신문·방송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

○ 학교주변 신설 유해업소 사전규제 : 지역교육청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로 근원적 차단

○ 학교주변 유해업소 계도 :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로 지정하여 유해업주 계도

(질 의)

지방교육자치제 관련

(답 변)

○ 지방교육자치제와 관련한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므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질 의)

새 학교 문화 창조 관련

(답 변)

○ 수행평가 실시

- 학급당 학생수의 연차적 감축(신입생 기준)으로 여건 개선

• 2002학년도 40명, 2001학년도 39명, 2002학년도 36명

- 수행평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9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할 공통필수 10 과목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도구, 채점방법 등에 관한 지침서와 교사 16,000여명에 대한 연수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 강화

- 학교의 집행기관은 학교장이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임

- 학교장은 학운위 심의결과에 대하여 '가치판단에 관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여 집행하고,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은 기관장이 책임있는 판단을 해야 할 것임

○ 학생의 담임선택제

- 학생의 학급담임선택제는 세심한 연구·검토를 거쳐 시행해야 할 과제임

- 단위학교 중심으로 교원구조,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시행

○ 수업우수교사 선정

- 교사의 전문성 제고는 수업지도와 생활 지도를 위한 것으로 필요 조건임

- 수업우수교사는 교장, 교감, 동료교사, 교육전문직 등이 참여하는 여러 형태의 장학활동을 통해 선정되므로 공정성 시비나 자율성 속박은 최대한 배제됨

○ 수습교사제 도입

- 수습교사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자질 함양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수습교사제가 교원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으나 체계적 교사 수습 프로그램과 평가기준을 마련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

할 수 있음

○학교 교육계획서 공모

- 시·도교육청 및 지역학교의 특수여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면 행사를 시·도 지역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음

○교원의 자율성 저해 및 업무량 가중

- 교무실 사무자동화 추진을 통한 업무 간소화
- 보고공문 통제를 통한 공문서 감축
- 전교원이 자율적·창의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 새물결 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

○'교육개혁 2002'의 성공적 실천 대책

- 우리 교육청에서는 '97학년도부터 종래의 교육 방법 혁신을 통하여 초·중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키기 위하여, 단계별로 「새물결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주요 과제는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창의력 신장교육, 체계적 진로지도, 교육정보화 실현에 두고, 논술형 평가·독서교육·컴퓨터 활용기능 신장교육·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 이는 교육부가 발표한 「2002년 새 대입제도」와 「교육비전 2002-새 학교문화 창조」방안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와 일치하고 있음

-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교육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자율적 개혁 의지를 실천하며, 단위학교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음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盧武鉉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주주의 교육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자치교육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답 변)

○현행 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별활동 영역에 학급활동과 클럽활동을 12단위로 배정하고, 단체활동은 4단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학교활동(학생회와 행사활동)을 위한 시간은 별도로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학생자치활동은 학생들의 민주적인 생활태도 형성에 중요한 학교활동이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학교교육 새물결 운동』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고등학교로 확산할 계획임.

○특히 학생회 임원의 직선제 권장, 민주적 회의

방법 지도, 『열린 토론회』 개최, 건전한 학생문화 형성, 청소년육성단체 활동 권장 등을 통하여 학생 중심의 자치활동이 되도록 하고 있음.

(질 의)

시민공동체의식 함양과 관련하여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

(답 변)

○시민공동체 의식 함양은 곧 인성교육 강화에 있으며

○인성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교육 공동체 모두가 일체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급격한 산업사회로의 변화속에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의 교육기능이 크게 약화된 실정이어서 학교교육의 중요성이 가중됨.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과서 중심의 이론 교육에서 탈피하여 체험·실천위주의 교육활동에 역점을 두고,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초·중학교 새물결 운동'과 '경제 살리기 운동',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초등학교는 "기본생활 규범의 실천 강화", 중학교는 "민주시민 교육", 고등학교는 "세계 시민교육"에 그 초점을 두고 공동체 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음.

(金許男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소음허용기준 초과학교에 대해 학교이전, 방음벽 설치 등 대책은 무엇인가?

(답 변)

(다음 페이지에 계속)

○소음진동 허용한도 초과학교 현황

학교급별	학 교 수	소음원인별 학교수				비 고
		도 로	철 도	항공기	건 설	
초	19	12	2	5	-	
중	17	11	-	6	-	
고	18	11	3	4	-	
계	54	34	5	15	-	

○학교소음방지 대책

- 소음피해학교 이전에 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
-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에 의거 소음피해 원인 별로 서울특별시, 서울지방철도청, 한국공항공단 등에 적절한 방음시설 설치를 매년 요구하여 해당부서별로 소음피해 학교에 대해 방음 시설을 설치중
-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의 경우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방음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받아 피해가 큰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냉·난방시설을 설치중
- 소음원인제공기관에 계속적으로 방음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소음피해 학교에 대해서는 이중창 설치 및 소음원 방향으로 특별교실을 배치하여 수업중 소음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도.

(질 의)

불법과외 단속반의 미약한 정보 수집 대책과 신고센터 구성·운영의 활성화 방안은?

(답 변)

- 불법과외 단속반의 미약한 정보 수집 대책으로 불법과외 신고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이나 검찰 등의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등 긴밀하게 업무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며, 불법과외 혐의자 및 불법 학원운영자를 전산 관리 하도록 하겠음
- 우리 교육청의「기동단속반」이 별도로 특정 지역의 불법과외 학원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과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 바, 이를 더욱 강화하겠음
- 신고센터에 제보되는 불법과외 신고 내용이 현장 확인·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중, 우리 교육청이 처리하기에 어려운 사안은 신속하게 경찰이

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 의)

실직자 증가로 추가 발생한 2천5백명의 결식학생 전원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향후 지원 계획은?

(답 변)

○사업목적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 학생중 중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중식을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학교 학습활동을 도모하여 위화감 해소와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

○지원대상의 선정

생활보호대상자 및 결손가정의 자녀, 학부모의 경제력 상실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선정

(다음 페이지에 계속)

○중식지원 현황

지원현황 학교급별		자체 지원 현황			외부단체 지원현황	계 (단위 : 명/천 원)	비고 (1인1식당단가)
		기 편 성	추가지원 (증가율)	소 계			
초	학생수	4,851	3,402(70%)	8,253	2,517	10,770	○급식학교-당해학교 급식비(약1,300원) ○비급식학교-2,000원
	예산액	960,498	338,976	1,299,474	461,572	1,761,046	
중	학생수	1,302	914(70%)	2,216	595	2,811	2,500원
	예산액	585,675	144,000	729,675	186,630	916,305	
고	학생수	1,393	2,208(159%)	3,601	237	3,838	2,500원
	예산액	626,790	780,525	1,407,315	85,794	1,493,109	
계	학생수	7,546	6,524(86%)	14,070	3,349	17,419	
	예산액	2,172,963	1,263,501	3,436,464	733,996	4,170,460	

○대 책

- 교육부로부터 추가 지원액 2억천5백87만4,000원과 서울교원단체연합회에서 1억4,000만원과 극동방송에서 4,100만원과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들의 성금 511만원, 교원연수원 알뜰매장 수익금 635만8,000원으로 결식학생을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지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 방학중 중식지원은 시민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계획으로 추진되어 대상 학생의 거주 지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협조 추진중에 있음.

(朴承國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이제는 사학의 자율화와 특성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서울시교육청부터 실시할 의향은?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학재정이 열악하여 매년 사학지원금이 증가하여 교육재정의 악화요인이 되고 있음

○ 사립학교의 자율화는 인사·재정·학사의 자율화로 볼 수 있는데,

- 인사권은 학교법인에 있어 사학별로 자율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 재정의 자율화는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행 고등학교의 평준화 제도와 양면의 관계로 평준화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불가능하나

- 외국어고(6교), 예술고(5교)와 같이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등

록금 자율책정권을 부여하고 있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학사운영의 자율성은 고등학교의 교육이 중학교와 연계한 중등교육으로 일정한 교육정책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현재 법이 허용한 부분적인 자율은 가능하지만 전면적인 자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질 의)

최근 4년동안 학생과 교원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직의 인원이 증가 하고 있는 이유와 교육행정직 인원을 대폭 줄여 효율화할 용의는?

(답 변)

○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직의 인원이 증가한 이유

- 학교의 설립 등 기관설치에 따른 증가,

- 초등학교의 급식 실시에 따른 식품위생직 증가,

- 성동·성북교육청 신설에 따른 증가

○ 현재까지는 기관이 설립되거나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교육부에서 그에 따른 새로운 정원을 증원 배정하여 주었음.

○ 그러나 앞으로는 『총정원제』를 도입하여 기관 신설 및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시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운영하게 되며, 현재 정원의 15%를 감축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효율적인 운영을 할 방침임.

(薛勳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과 관련

- 해마다 사립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 대한 법인의 재정지원이 없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부실한 사학법인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사립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제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대부분 사립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형편이 영세하고 수익이 저조하여 수익금의 학교 전출을 기대할 수 없음.

기준재정수입의 96.46%(’97. 정산기준)에 해당하는 수업료 인상폭에 비해 인건비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커 재정난 심화로 매년 자립도가 낮아질 전망이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은 학생납입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거나 학교법인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고 봄.

그러나 수업료의 현실화는 현 여건에서 사실상 어렵고 학교법인의 전출금에 의존하여야 하나 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의 대부분이 수익성이 낮은 임야 등 토지로 구성되어 있어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와같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97년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이 새로이 제정되어, 향후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연간 5%이상의 수익이 있는 재산만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바 있음.

○기존 법인에 대하여는 매년 법인 재산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비수익 또는 저수익 토지는 매각하거나, 개발·임대 등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사학 경영평가에 이와같은 개선실적을 반영하여 사학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

○이 방안의 일환으로 사학기관 지도육성방안을 수립(98.10)하여 학교법인이 학교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지원규모에 차등을 두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매년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법인은 학교를 위한 재원전출 노력이나 학교발전 구상등에, 학교는 외부로부터의 교육재원 유치노력 또는 잡수입의 양성화 등에서 많은 점수를 주어 자구노력을 유도하였고, 제도개선으로 교육용 학교시설 사용에 따른 대가료나 사용료를 양성화하여 기본수입으로 계상할 경우 일정한 비율까지 자율사용하게

하거나 표준예금이자수입제도를 도입하여 보통예금이자율 초과하는 이자는 학교에서 자율사용케 하는 등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나 무엇보다도 학교법인이나 학교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뒤따르는 의지가 있어야 소기의 목적달성이 가능할 것임.

○지적하신 분쟁을 야기하는 사학에 대해 벌점을 부여함으로써 문제점을 고발하는 학생 및 교사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예상되나 금년도에 실시되는 예비평가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완한 후 내년도에 본 평가에 반영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

○정량적인 측면과 함께 법인의 자구노력의지등 정상적인 평가가 병행되어 사학의 여건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는 등 객관적, 합리적인 평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질 의)

경기여상 관련

-경기여상의 정상화 여부와 교사 집단 파면에 따른 입장 및 대책은?

-경흥학원(경기여상) 임시이사 파견 후 소송 진행 사항

-경기여상 학교 뒤 옹벽공사 현황과 문제점

(답 변)

□경기여상의 정상화 여부와 교사들에 대한 대책

○경기여상은 금년 5월 이후 학내소요가 진정되고 현재 정상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학교법인경흥학원에서는 경기여상의 학내분규와 관련하여 교사 5명에게 직무태만, 직무상명령거부 등의 사유로 ’98.2.1 징계 파면하였으나,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변경 결정으로 해임처분한 바 있음.

○또한 ’98학년도 신입생 모집결과 지원자가 급격히 감소하자 ’98.2.27 학급감축 등의 사유로 11명을 과원교사로 분류한 후 직권면직 하였으나,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결정으로 ’98.7.25 복직시킨 바 있으나, 동 교사 9명(박정희교사는 의원면직)을 포함한 13명의 교사들을 직무태만, 집단행위금지 위반, 명령 불복종 등의 사유를 들어 ’98.8.19 (1명은 ’98.8.22)자로 다시 징계 파면시킨 것임.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에서 처리하는 법규적 사항으로 교육청의 지도·감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다만, 파면된 교사들중 법인측의 처분결과에 불복이 있는 교원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

□경흥학원 소송진행 상황

○'97.6.17 유지경영학교 학내분규의 책임을 물어 학교법인 경흥학원의 임원 8명을 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 7명을 선임하였으나,

○승인취소된 임원들이 '97.6.2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같은해 10.10일 기각된 바 있음.

○'97.6.23 서울고등법원에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신청하여 같은해 9.5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에 따라 임시이사는 철수되었으며, 본 취소소송에 최선을 다하고자 변호사 3인을 선임, '98.12.3. 10차 심리가 있을 예정임.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97.12.9.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처분 효력정지결정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신청하여 현재 '98.1.5. 2차 심리후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경기여상 학교 뒤 옹벽공사 현황과 문제점

○학교 뒤 옹벽공사는 우리 교육청에서 재정지원 하지 않은 학교자체 공사로서 '98.6.5 (주)청양토건과 금 6천 6백만원에 '98.6.5부터 8.31 사이에 공사하기로 계약하고 시공하였으며, 대금은 학교 육성회비에서 지급하였음.

○우리 교육청의 보조금이 아닌, 학교자체 재원에서 시행한 공사이기 때문에 별도 준공검사를 하지는 않았으며, 학교측에 의하면 계약자의 부도 사건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다소 늦어진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 확인하고 있음.

(질 의)

금성초등학교 징계처분 교사들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결과 취소처분이 나왔으니 금성초등학교 징계처분 교사들의 신분을 원상회복시킬 수 없는가?

(답 변)

○'97.10.23 황춘근 교사가 금성초등학교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이후 학교재단과 교사간의 대립과 분쟁이 장기화되어

○금성학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4명과 해임 6명,

징직 1명, 감봉 1명, 견책 1명 계 13명을 징계의결하였고, 재단이사장이 징계위원회 의결내용을 해임 7명, 감봉 4명, 불문경고 2명으로 징계양정을 변경하여 처분하였고

○이에따라 해임과 감봉 처분받은 9명이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임명권자가 법인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양정을 임의로 조정 처분한 점과 징계처분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교부하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적시를 하지 않은 점에 법인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하였음.

○그리하여 징계처분권자는 교원징계처분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취소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징계를 끝내도록 되어 있어서

○'98.10.2일 금성학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되어 '98.10.12일 임명권자가 파면4, 해임 5명으로 재징계처분을 하였음.

○우리 교육청의 앞으로 대책은 재징계받은 교사 9명이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에 청구를 할 예정으로 재심결정이 확정되면, 이 결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내용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음.

(李相賢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과거 역대 정부에서 인성교육, 공동체의식 함양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고 보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안은 ?

(답 변)

○우리 교육청은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의 기본방향을 지식보다는 사람됨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일대 전환하고 재미있는 공부,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교육방법으로는 학생들의 체험활동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생활습관과 공동체 의식을 체질화하도록 하고 있음.

○인성교육의 성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인성교육은 가치의 내면화와 행동실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도할 때, 그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식이

나 기술교육처럼 짧은 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음

-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협력하여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데도,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사회의 관심과 청소년의 바른 인성을 저해하는 유해환경 때문에 인성교육의 성과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 또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높여 주기 위하여 어머니교실을 통한 부모교육과, 아버지회 및 부자(父子)캠프를 통해 가정에서 아버지의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우리 청소년들에게 바른 인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학교 밖 사회를 교육적 환경으로 전환하도록 온 국민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상업성만 내세우는 비교육적 방송·신문의 내용, 약물, 불량도서, 음반, PC 통신 내용 등을 과감히 정리하여 교육적 환경으로 바꾸어 줄 때, 인성교육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함

(질 의)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을 다시 편성할 용의는?

학교에서 가정의 예절교육까지 지도하는 구체적, 실천적 현장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 변)

-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의 초점을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교육에 맞추고, 지식보다는 사람됨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일대 전환하여 재미있는 공부, 즐거운 학교 풍토를 만들어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대학입시를 위한 지식 중심의 획일적 교육으로 학생들을 점수화, 서열화하여 상호과열 경쟁의 풍토속에서 인간성 교육에 소홀히 해왔으나, 이제 입시체도의 개선 방향이 확정되어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고운 심성과 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해 체험중심의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생활 습관과 공동체 의식의 체질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기본생활규범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어린이 5가지 지키기(먼저 바르게 인사하기, 줄서서 차례 지키기, 교통안전 규칙 지키기, 내일은 내

가 하기,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기) 등 민주시민의 기본 생활규범을 실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체험활동 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해, 새물결 운동의 일환으로 서울이외의 지역 학교와 교환 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시골학교 시설을 이용한 자연학습활동 등을 통해 다른 지역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의 전통가치와 의식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며, 초등학교생들의 노인정 방문 위로활동을 실시하여 경로효친 의식을 높여 주고 있음.

- 한편 인성교육의 강화 및 일반화를 위하여 인성교육 시범교육청(1교육청) 및 시범학교(24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방법 개선을 위하여 교사 인성교육실천 사례연구대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고,
- 교육과정 편성·운영면에서도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기술하는 서술식 기록과 다양한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자율학습의 날을 설정하여 교과서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전개하며, 열린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의 개성 및 능력에 맞는 개별화 학습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음

(질 의)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 교사 1인당 1PC보급 계획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를 재검토할 용의는 ?
- 멀티미디어 기자재의 활용 및 관리에 문제성이 많으므로 학습자료의 충분한 개발과 학교전산망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PC를 보수 유지할 전문인력이 없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교PC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인력, 공익근무요원 또는 공공근로사업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교원용 컴퓨터 보급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교원당 1인 1대씩 컴퓨터를 보급하여 교원들의 업무처리, 교육자료제작, 교육정보관리, 사무자동화를 통한 업무경감 등의 목적으로 '97년부터 2002년까지 완료토록 하는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실에 컴퓨터를 비롯한 교단선진화용 기자재가 보급되므로 학급 담임용은 별도 지원되지 않지

만, 비담임 교원에게는 보급하고 있으며, 컴퓨터에 의한 업무처리 특히 성적처리에 있어서는 학생 개인정보보호에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1인 1대의 컴퓨터 보유가 아니면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는 업무처리, 교육자료제작, 교육정보관리가 활성화되면 1인 1대가 아닐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

또한, '99년에는 예산상 어려움으로 교원용 컴퓨터 보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며, 1인 1대씩의 완전보급은 2002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전망함.

- 멀티미디어 기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교과교실, 특별교실 등에 보급된 기기를 재배치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조치하였고,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초·중·고교 1천152교에 학교당 50만원씩 총5억 7,600만원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현장교사들의 활용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방과후·야간연수를 개설하는등 1만5천여명의 연수를 실시하였음.

학교전산망 구축은 학교내의 컴퓨터를 랜(LAN)으로 연결하여 인터넷을 연동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는 통신망 연결을 위한 교육용,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 주력하였으나, '99년부터는 학교전산망 구축 등 통신망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 인터넷 활용을 비롯한 교육정보 유통에 적극 노력하겠음.

아울러, 교단선진화사업은 당초 '97년부터 '99년까지 보급 완성할 계획이었으나, IMF체제로 인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2000년 이후로 지연되었음.

- 학교현장에 보급된 컴퓨터에 비하여 관리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주로 교사들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 '98년 9월부터 6개월간 337개교에 고허력 미취업자를 일용 전산보조원으로 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서울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99년 3월부터 전산보조 공익근무요원 324명을 각급학교에 배치하여 컴퓨터관리 등 학교정보화 업무를 돕도록 계획되어 있음.

또한, '99년에는 학교별 정보화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특별연수도 계획되어 있음

(朴範珍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공정성 시비와 사교육비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

한 의견과 대책은?

(답 변)

-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은 지금까지의 입시위주,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 신장 및 인성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혁신적인 개선안으로,
- 대학 입시의 속성이 선발임을 감안할 때, 공정성과 신뢰성의 유지가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임
-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가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적용할 공통필수 10과목의 논술형·서술형 평가 방법 및 도구개발 연구용역을 권위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토대로 '99년 1월에 고등학교 해당교과 교사 15,000여명에 대해 연수를 실시할 계획임
- 봉사활동,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 등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는 '99학년도「고등학교교육 새물결운동」평가영역 선도(거점)학교에서 평가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각 고등학교에 과급·적용하도록 함

아울러 학교별 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험·실습, 실기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한 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생에게 즉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음.

-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거 작성한 보조장부 기재 내용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전산 입력처리 하도록 하고, 출력물을 보조장부와 대조·확인하며, 의무적으로 학생 본인의 대조·확인을 거쳐 최종 출력물에 대하여 학교장이 결재하여 전산자료를 확정하도록 장학력을 강화하고 있음
- 그리고 특기 신장을 위한 과외로 사교육비 증가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과외육구를 학교안으로 끌어들이 불필요한 과외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음

(질 의)

교육비리 처리 방식 관련

- 교육비리는 교사 전체의 명예를 지키고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행과 같은 교육비리 처리 방식에 대한 견해는?
- 고액과외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장과 감독청

의 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 변)

- 교육 일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교사가 대부분임에도, 최근 발생하는 교육비리로 일선교사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가는 현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 이번 불법 고액과의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면 신속하게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학생이 상처받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지도하겠으며 교사에 대한 불신, 교권 실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실정에 맞는 교권 사기 진작책 및 학교에 대한 신뢰성 제고 대책을 강구토록 적극 추진하고, 학교 스스로의 자정운동을 통하여 교사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비리 유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예방적 지도·감독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음.
- 고액과의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소관업무 담당자에게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엄중 「주의」조치('98.10.9자) 하였고, 11개 지역교육청 학원단속 업무 부서의 전직원을 2차에 걸쳐 전원 인사조치('98.8.12, 9.12자)한 바 있음.
- 또한 연루교사가 소속된 학교장 및 교감에 대하여는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토록 할 계획임.

(李在五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교단선진화사업 관련

- 비활용, 무자료, 무방향으로 인한 교단선진화사업이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데 예산을 계속 투자할 것인지?
- 획일적 예산 배분보다 예산을 신청하는 학교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 '97년도부터 국가적 차원의 교육정보화사업이 시작되었고,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으며 교단선진화 기기는 일반교실에 설치되어 있어, 학급당 인원이 많은 고등학교는 비좁은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교과교실, 특별교실등에 재배치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의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당초 '97년부터 '99년까지 보급 완

성할 계획이었으나, IMF체제로 인해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2000년 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 학교의 활용의지(신청학교)와 교사의 능력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간업체가 개발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초·중·고교 1천152교에 학교당 50만원씩 총5억7,600만원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현장교사들의 활용능력을 신장시키고, 교육정보화사업을 가속시키기 위해 교과연구회를 비롯, 방과후 야간연수를 개설하는 등 1만5,000여명의 자율연수를 실시하였음.
- 또한, 공항중학교의 컴퓨터가 창고에 있었던 사유는 286XT급으로써 1990년에 보급되었던 것으로 '97년12월 10일자로 불용 폐기처분된 것으로 기술과 교사들이 그 부품 일부를 해체하여 수업시간에 활용하고자 보관하였던 것임.

(질 의)

학교폭력 관련 사회교육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기본계획은?

(답 변)

-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
 - 청소년 선도방송 실시
 - EBS, SBS, TBS, CBS 등 4개 방송을 통해 매일 2분씩 송출
 -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 학교별 2회, 86,349명('98.6.30 기준) 참가
 - 청소년 유해업소 및 지역사회 계도
 - 학부모 교육 및 가정통신문을 통한 계도활동 전개
- 학교폭력 예방 민간 참여 활동 활성화
 - 학교폭력 대책기구 민간 참여 확대
 -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 학부모 및 지역사회 자원 인사 위촉(279개소, 1,122명 배치)
 - 학부모 중심 학교폭력 예방 자율 봉사단 조직·운영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협조체제 강화
 - 서울시청 : 학교폭력예방지원협의회 운영 협조
 - 검찰청 :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공조, 『준법우수학교 표창』운영 협조
 - 경찰청 :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운영 협조
 - 청소년 취약지역 합동순회지도 실시
 - 청소년사랑실천시민연합 : 부적응학생 적응교

육 위탁

(金日柱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 서울 YWCA 청소년회관 : 학교폭력 신고엽서
제 공동 운영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부적응학생 적응교육 및
학교폭력 신고엽서제 운
영 협조

(질 의)
129개교의 누수건물과 운동장 물고임 학교 건축
년도 현황
(답 변)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청명	학 교 명	건 물 명	건축년도	비 고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	망우초	동관동	1970	
	홍파초	본관동	1961	
	면동초	본관동	1968	
	봉화초	본관동	1995	집중호우시 누수
	신현초	본관동	1996	현재 하자보수 조치중
	전곡초	본관동	1963	
	종암초	본관동	1970	
	동답초	본관동	1984	
	상봉초	본관동	1983	
	신답초	서관동	1972	
	용두초	서관동	1967	
	전농초	전관동	1967	
	중곡초	본관동	1971	
	중화초	서관동	1963	
	청량초	서관동	1966	
	동대문여중	본관동(강당)	1968	
소 계	16	16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상신초	나동	1971	
	신도초	나동	1980	
	역촌초	가동	1971	
	성사중	가동	1981	
	언북중	가동	1984	
소 계	5	5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쌍문초	본관동	1974	
	창동초	본관동	1971	
	도봉초	서관동	1969	
	불암초	본관동	1993	
	상천초	본관동	1989	

교육청명	학 교 명	건 물 명	건축년도	비 고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월천초	본관동	1988	
	청계초	본관동	1992	
	신상계초	본관동	1970	
	방학중	본관동	1982	
	중계중	본관동	1993	
	중원중	본관동	1991	
소 계	11	11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	창신초	북관동	1962	
	신용산초	본관동	1968	
	한강중	본관동	1969	
소 계	3	3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토성초	본관동	1983	
	가락중	본관동	1986	
	고일초	본관동	1984	
	문정초	본관동	1984	
	성일초	본관동	1983	
	아주초	본관동	1986	
	잠동초	본관동	1980	
	한산초	본관동	1990	
	고명초	본관동	1987	
	고덕초	본관동	1983	
	방산초	본관동	1992	
	신가초	본관동	1988	
	성내중	본관동	1985	
	아주중	본관동	1986	
	오륜중	본관동	1988	
소 계	15	15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	강서초	서관동	1981	
	양천초	후관동	1972	
	목동초	본관동	1974	
	신강초	교사동	1984	
	신남초	교사동	1983	
	신목초	서관동	1982	
	양목초	교사동	1981	
	월촌초	교사동	1985	
	치현초	교사동	1984	
	송화초	본관동	1989	

교육청명	학 교 명	건 물 명	건축년도	비 고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	신원중	본관동	1985	
	염창중	교사동	1984	
	강신중	교사동	1989	
	소 계	13	13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반포초	본관동	1973	
	언북초	본관동	1965	
	일원초	본관동	1984	
	방배초	본관동	1975	
	개원중	본관동	1984	
	원촌중	본관동	1982	
	소 계	6	6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난곡초	본관동	1971	
	난우초	본관동	1976	
	당곡초	신관동	1974	
	동작초	본관동	1982	
	미성초	본관동	1968	
	봉천초	2동사	1969	
	신봉초	본관동	1981	
	신우초	본관동	1978	
	원당초	별관동	1973	
	은로초	2동사	1966	
	소 계	10	10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	신자초	별관동	1983	
	성자초	본관동	1983	
	성수중	본관동	1972	
	옥정중	본관동	1983	
	소 계	4	4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상고	강당동	1926	
	서울체육고	본관동	1985	
		기숙사동	1985	
	서울과학고	본관동	1993	
	경기기공고	기숙사동	1979	
		체육관동	1980	
	동호공고	실습동	1992	
	서울북공고	2실습동	1972	
	송파공고	별관동	1992	
서울공고	요업동	1955		

교육청명	학 교 명	건 물 명	건축년도	비 고
서울특별시 교 육 청	선린상고	본관동	1978	
	당곡고	교사동	1983	
	자양고	교사동	1979	
	온수고	교사동	1989	
	한성과학고	체육관	1992	
	서울고	교사동	1979	
	청량고	교사동	1975	
	영등포여고	강당	1974	
	용산고	강당	1982	
	소 계	17	19	
합 계	100	102		

운동장 물고임 현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청명	학 교 명	시 설 명	개교년도	비 고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고명초	운동장	1987	
	가락초	운동장	1981	
	가원중	운동장	1989	
	(소 계)	3	3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난곡초	운동장	1971	
	남사초	운동장	1979	
	남성초	운동장	1967	
	당곡초	운동장	1974	
	대림초	운동장	1973	
	문창초	운동장	1946	
	상도초	운동장	1967	
	신봉초	운동장	1981	
	영본초	운동장	1967	
	인현초	운동장	1967	
	문창중	운동장	1981	
	미성중	운동장	1984	
	봉천여중	운동장	1969	
	상도중	운동장	1969	
	산림여중	운동장	1970	
	인현중	운동장	1971	
(소 계)	16	16		

교육청명	학교명	시설명	개교년도	비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용산고	운동장	1946	
	삼성고	운동장	1987	
	석관고	운동장	1983	
	선린정산고	운동장	1899	
	서울공고	운동장	1908	
	경동고	운동장	1940	
	온수고	운동장	1988	
	관악고	운동장	1974	
(소계)	8	8		
합계	27	27		

(질 의)

초·중·고등학교 국사 교육 현황은?

(답 변)

- 국사 교육은 초·중등 보통교육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 하는 중요한 교육 영역으로 설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국사 학습을 통하여 민족공동체 의식과 민족 문화 유산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민족 공동체 일원이라는 자각과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기르고 세계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지게·지도하고 있으며
- 국사 시간의 비중은 초등학교에서는 국사 중심으로 사회과 교과서를 편찬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별도의 교과서를 편찬하여 2, 3학년에 주당 사회 4시간 중 2시간을 배당 지도하고, 고등학교에서 국사 교육은 공통필수 10과목 70단위 중 1과목으로 설정하여 6단위를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국사 교육은 교과교육 뿐만아니라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 지도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 힘쓰고 있음.

(黃祐呂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교육의 핵심인 양심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고전을 많이 읽게 하거나 무감독 시험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지론은 ?

(답 변)

- 양심교육을 위한 창의성 신장교육과 인성교육을 하기 위하여 고전을 많이 읽게 하거나 무감독 시험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고전 읽기 등을 포함한 독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급별로 학교경상운영비의 5% 확보, 도서실 확충, 양서 읽기 지도, 독서행사 활성화, 지역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계속하여 지도하고 있음.

- 무감독 시험에 대하여는 학교급별로 교사와 학부모 등의 협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학교별로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됨.

(질 의)

성교육은 막중하고 시급함에도 2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심도있는 대책과 소신은 무엇인지?

(답 변)

-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폭력의 위협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지니도록, '성교육 지침서'를 발간하여 예방위주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지도시간은 초등학교 1-4학년은 수시, 초등학교 5-6학년·중학교 전학년·고등학교 1학년은 연간 10시간 정도, 고등학교 2·3학년은 연간 5시간 정도의 별도 시간을 확보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음.
- 지도교사는 양호교사, 관련 교과(가정, 체육, 교련, 과학, 윤리과 등) 교사, 학급 담임교사가 성교육 지침에 따라 지도하고 있음.
- 성교육 지도자료로 '97.3월에 중학생용 '성과 행복'을, '98.3월에 고등학생용 '성과행복'을 인정도 서로 개발·보급 하였음.
- 성교육을 위한 시범학교 2개교(상도여중, 광양고)를 지정하여 11월에 공개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성교육 지도를 위한 교원 연수 실적으로는 대안가족계획 협회(교육훈련부)에서 성교육, 정상담연수 90명(초·중·고),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55명(초·중·고)이 교육을 받았음.

(질 의)

교육행정 간부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은 이유와 향후 대책은?

(답 변)

○교장, 교감의 승진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특별히 배려할 수 없으나 여성할당제, 복수 추천제, 남·여 분리평정 등은 앞으로 평정규정 개정시 건의하겠으며, 여교원이 승진이나 전직하는데 특별한 차별이나 제한조건이 없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여교원의 승진, 전직, 전보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질 의)

교육자치는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답 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종전의 획일적인 지시 일변도의 행정체제를 타파하고, 각급 기관장들이 자율성과 창의성 및 다양성을 고무시키는 쪽으로 시책을 펴 나가고 있음.

○앞으로 교육자치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계속적으로 신장하기 위하여

- 교육감의 일부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등 하부위임을 대폭적으로 실시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교육행정 체제를 구축함.
-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사항을 과감히 철폐하여 학교 현장에 적합한 시책만을 시행토록 함
- 적극적인 감사활동의 전개로 사후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예방감사 활동을 지향함

(질 의)

교감은 교육행정 업무에서 소외되고 있어 교장이 되었을 때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과 정책방향은?

(답 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②항에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여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듯이 교감은 학교 업무 전반에 걸쳐 기획, 조정, 통제를 통하여 학생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계신, 기

능, 참모조직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음.

학교교육에 있어 학교장의 경영방침을 토대로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게 되도록 힘쓰고 있음.

다만, 회계업무에서는 교장은 분임경리관, 행정실장(서무부장)은 출납원으로 제도적으로 임용되어 있어 교감은 회계업무에서는 소외되는 경우가 있으나, 계속적인 지도로 학교교육 행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에 노력을 하겠음.

(질 의)

전문직(교사)에 대한 감사와 지도는 전문직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미필적 고의 또는 판단의 오류에 의하여 저질러진 과오에 대하여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함

○전문직(교사)의 그릇된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되는 과정에서 일반직에서 담당하고 있는 감사팀에 전문직(장학사)이 참여할 수 있다면, 전문직(교사)의 권위와 자존심이 상당히 지켜질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앞으로 비위감사 및 조치과정에 전문직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음.

(질 의)

유아교육 업무담당 및 정책결정 부서는?

(답 변)

○우리 교육청에서 유아교육정책 및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초등교육국 초등장학과(유아교육담당장학관)이나, 업무의 성격에 따라 대체로 3개 부서에서 분담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진흥,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도, 원아 생활지도, 실험·시범유치원 운영지도, 자료개발 보급 등의 업무는 초등장학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아교육담당장학관 1명, 장학사2명이 배치되어 있고, 유치원 교원의 인사, 연수, 포상, 징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등의 업무는 초등교직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전담하는 장학사는 별도로 없으며 초등교육 담당장학사가 겸하고 있고, 유치원 원아수용계획,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등의 업무는 관리국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반적이 1명 배치되어 있음

○지역교육청에서 유아교육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계로 유치원장학협 의 및 실험·시범유치원 운영지도, 교육과정운영 지도, 유치원 교원 인사, 연수, 포상, 복무, 징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청 별로 장학사 1~2명이 배치되어 있고 유치원 설립·폐지, 유치원관리운영지도, 예산·결산지도 등의 업무는 관리과 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반직이 1명 배치되어 있음

○이러한 행정지원체제는 그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나 정책수립의 필요성에 비추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부서를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음.

(질 의)

고액과외 관련

-고액과외 기준, 과외교습학생과 관련교사의 징계 기준 관련학생 보호차원처리 의향, 교원사기 진 작 방안

(답 변)

○불법과외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3조」에 의해 판단하게 됨

○동 법률에 의하면 불법과외는 현직교사의 과외 교습 행위, 학원강사의 학원 밖 교습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직업적,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생 교 습 행위, 일반인의 무등록 교습 행위, 학원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행위 등 임.

○고액과외는 명확한 고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학원의 경우 등록된 수강료를 초과 하여 부당하게 징수하는 경우이며, 대학생 과외 교습 등의 경우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사법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음.

○일반인, 학원 강사 등의 개인 교습은 교습비에 관계없이 불법 과외교습이며, 이때에도 고액과외 여부 판단은 사법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음.

○과외교습 학생에 대한 징계 기준은 각 학교의 학칙에 의하며,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교 내봉사(근신)에서 특별교육 이수(무기정확)까지 있음.

○학교마다 학생 징계 기준이 다른 이유는 학교의 규칙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관련교사의 징계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정령의 의무) 및 제63 조(품위유지의 의무),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용) 임.

○관련 학생은 소속 학교장에 통보하여 학칙에 따 라 교육적으로 지도하도록 함.

○이번 사건 처리에 있어서 공·사립 교원간 균형 있는 징계 기준을 정확히 정하여 적용하며, 단순 관련된 선의의 교사는 보호하여 무리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학교실정에 맞는 교권 사기 진작책 및 학교에 대한 신뢰성 제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음.

(鄭喜卿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사가 「전라도 출신이 많다」 라는 말이 많은데 자료를 보니 사실이 아닌 것 같 다. 또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이 고려대 출신일뿐 더러 고려대학교 출신이 많다고 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답 변)

○본청 5급상당 이상 공무원 출신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체 80명 중 서울·경기권이 29명(35%)으 로 가장 많고, 영남권이 20명(25%)이며, 충청권이 16명(20%), 호남권이 15명(18%)으로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특정지역 위주의 인사는 없음

공무원 임용에 있어 애초부터 지역을 고려하 지 않고 임용하고 있으므로 「전라도 출신이 많 다」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고려대학 출신이 많다는데 대하여도 일반직의 경우 대학원 졸업자가 총 52명 중 27명이 고려 대학원 출신으로서 고려대학원 출신이 많아서 나타난 현상이므로 고려대학원 출신을 선호하여 고려대 출신이 많은 것은 아님.

(질 의)

교육개혁에 대한 일선의 느낌과 반응은 ?

(답 변)

○교육개혁은 기존의 교육방법과 질서를 일시에 변화시키려는 데서 불안과 저항감을 느끼고 있 고

○교육개혁은 일선현장에서 스스로 자율적, 자생적 으로 발생 추진되어야 하나 관 주도의 지시로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일시에 너무 많은 개혁과제 해결을 요구하기 때 문에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개

혁하고 점차 발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또한, 교육정책 수립에서 다양하게 현장 의견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일부 개혁세력의 주장에 편중되는 느낌이 있으며,
- 교사가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교육현장을 경제 논리화함으로써 교사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교원 정년, 명퇴, 퇴직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음
- 일부 교육비리를 집중 부각하여 보도함으로써 교사를 불신하는 사회풍조를 조성하므로 학부모, 학생, 사회로부터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여 학생과의 상담활동 및 학생과의 대화도 단절되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질 의)

철거대상 건물에 대하여 예산배정 우선권을 주는 것에 대한 견해는?

(답 변)

- 우리 교육청 산하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중 붕괴위험이 있는 E급 판정 건물은 오산고등학교의 8개교의 건물 11동이고 이중 4개동은 현재 개축 공사중에 있으며, 4개동은 사용중지, 3개동은 보수·보강후 일정기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개축전까지 사용토록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현재 개축중에 있는 오산고등학교, 광운전자공고, 유한공고, 대동상고의 건물 4개동은 환경개선 사업으로 '99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보수·보강후 부분사용 중지한 공항중학교 본관동은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99년도에 개축공사를 추진할 예정임.

(질 의)

학교평가는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교육감의 지시 이행 여부만의 평가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학교평가 방법 개선 대책은?

(답 변)

□학교평가는 학교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

□'98. 학교평가 실시 개요

○목적

-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학교의 질을 향상시켜, 공교육의 책무성 제고

○방침

- 2년 주기 평가 실시

• '98학년도 : 초·중 평가

• '99학년도 : 고, 지역교육청 평가

- 지역교육청 교육장 책임하 지역 실정에 맞는 평가계획 수립·시행
- 학교교육계획서 중심의 평가
- 단위학교의 여건을 감안한 창의적인 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 정도
- 서면평가 자료의 최소화를 통한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 현장 방문 평가 중심

○주요 평가 항목

- 학교장의 지도성
- 학교의 창의적 교육활동 등

□향후 평가 방법 개선

○점진적인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 제고

(질 의)

시설·재정등의 열악한 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은?

(답 변)

- 학교의 시설관리나 재정운영은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부터의 관심이 필요함에도 대부분의 학교법인의 수익이 극히 저조하고 특히 국가로부터의 재정결함지원에 의존한 채 특별한 자구노력도 없는 상태임
- 교직원의 인건비나 학교운영비는 공립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으나 시설비 지원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폭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음. 다만, 허용하는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한 시설의 보수나 교육환경개선은 엄선하여 지원할 계획임.

○무엇보다 학교법인이 학교 지원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므로 우리 교육청에서“사학기관 지도육성 방안”을 수립하여 학교법인이 학교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재정을 차등지원하는 사학기관 경영 자율평가제 틀을 마련하고, 매년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법인의 학교를 위한 채원전출 노력이나 학교발전 구상 등, 외부로부터의 교육재원 유치노력 또는 잡수입의 양성화 등의 학교에는 많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교육용 학교시설 사용에 따른 대가료나 사용료를 양성화하여 기본수입으로 계상할 경우 일정한 비율까지 자율사용하게 하거나 표준예금이자수입 제도를 도입하여 보통예금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는 학교에서 자율사용케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나,
○무엇보다도 학교법인이나 학교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뒤따르는 의지가 있어야 소기의 목적달성이 가능할 것임.

(질 의)

과원교사 자격 연수 관련
-단시일에 획일적 부전공 연수는 교사의 질을 저하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부전공 자격연수는 과원교사를 해소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학생교과 선택제 시행에 대비하여 '93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제7차 교육과정 시행을 앞둔 현 시점에서 「교사의 질」이란 의미에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교과 지도 능력뿐만 아니라, 학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복수교과 지도능력을 당연히 포함한다고 보고 있음.

○2~3개월에 양성한 교사가 교과지도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우리 교육청이 교원연수원 또는 각 대학에 위탁 실시하는 부전공 자격연수는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대학의 부전공 과정과 같이 21학점을 약 400시간에 걸쳐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수생들의 적극적 태도 속에 수준 높은 교수진을 갖추고, 어느 대학강의, 어느 연수과정 못지 않게 밀도 있게 운영하고 있음.

○과원교과, 즉 가정, 음악, 미술, 교련, 실업, 제2외국어 교사들로 하여금 윤리, 국어, 수학, 공통사회, 공통과학, 체육, 영어, 전자계산, 기술, 가정 등 과목 중에서 부전공연수를 신청하도록 하여 전공과의 관련성, 대학원 등 선수학습 경험, 희망여부 등을 고려하여 640명의 대상자를 엄선하고 있으며

○학교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면서 조속히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98학년도 후반부터 '99학년도 전반기에 걸쳐 오후제 및 야간제 연수로서 중등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과교육과정 중심의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 부전공 연수자를 대상으로 사전 원격연수 및 사후 보완연수를 실시하여 부전공 교사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힘쓰겠음.

(질 의)

학생상담활동을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위임하여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답 변)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 중심의 학생상담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학교상담실에는 젊고 유능한 교사를 배치하고, 학생이 희망하는 교사와 언제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였음.

○『학교 적응교육 프로그램』등 49종의 상담자료를 제작·보급하였으며, 금년에는 1,122명의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279개교에 배치하여 학교상담활동을 돕도록 지원한 바 있음.

○또한 600여명의 교사들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원연수원 및 외부상담기관에서 일반연수 및 직무연수를 받은 바 있음.

○향후 상담전담교사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된다면 단위학교 상담활동은 더욱 강화되리라고 확신함.

(질 의)

유아교육 정책이 중요하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유아교육의 중요성이나 정책수립의 필요성에 비추어 유치원교육의 기회확대와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유아교육담당 행정지원 체제 확충 등이 미약하다고 보며,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부서를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울유아교육의 대부분을 이끌어 온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측면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나, 현재 국가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므로 당장 재정지원 등의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98.3.1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은 무상으로 하여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이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들부터 우선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9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의결된 유아교육진흥법에 사립유치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으로 육성 발전시키도록 명시함으로써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만, 사립유치원의 재정지원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제정되는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임.

(질 의)

고액과의 사건에 관련된 교사 중 사립학교 교원이 많은 원인은?

(답 변)

○강남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은 관련교사 129명 중, 공립학교 교사가 3명이고 사립학교 교사는 126명으로 대부분 사립학교 교원임

○사립학교 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 사건의 주범인 김영은이 주로 사립학교 교원들을 유혹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그 주된 이유는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인사 이동이 없이 계속 같은 학교에 재직하기 때문에 한번 포섭하면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임.

(질 의)

방과후 교육활동비가 학교운영위원회 미설치교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그 근거는 ?

(답 변)

○방과후 교육활동비는 교육부에서 시달된 지침「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개선 및 지원계획」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미설치 교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음.

(李源發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유·초등교육에서 품위와 예절교육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우리 교육청에서도 바른 인성·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까지 대학입시를 위한 획일적인 지식교육에만 치중하여 예절교육이나 기본생활규범교육이 소홀히 되어 왔지만, 이제 2002년 대학 무시험진학을 계기로 예절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에 힘을 쏟을 때라고 생각함

○예절교육은 어렸을때부터 습관화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하여야 하며, 어린 학생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한 실천위주의 다양한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서울어린이 5가지 꼭 지키기 덕목으로

- ①먼저 바르게 인사하기 ②줄서서 차례지키기
- ③교통안전규칙 지키기 ④내 일은 내가하기
- ⑤공공 장소에서 조용히 하기로 정하고 행동

으로 실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예절실을 설치하여 전통 예절을 중심으로 실습을 통해 생활화 하도록 지도하며

-경로효친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초등학교와 노인정을 결연하여 연간 10회 정도 방문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또한 예절교육은 학교의 교육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가정과 사회가 협력하여 일관성 있게 지도하여야 하므로, 가정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부모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유치원 아동 부모를 위한 VTR자료를 제작하여 금년 12월부터 활용할 계획이며,

○예절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학생들의 모델이 되므로 교사들의 예절바른 행동과 모범적인 생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교사연수도 강화하고 있음.

(질 의)

2002년 대학입학제도 관련

-입안시 교육감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교육부에 건의해 보았는지?

-동 새 제도를 맞이할 준비상태 및 일선 교사들에 대한 연수 방안은?

-현장 교육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답 변)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9월 22일 윤중중학교에서 교원, 학부모 453명이 참석한 가운데「2002년 새 학교 문화창조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교육부에 보고함

○동 제도는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고등 학교교육 새물결 운동」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논술·서술형 평가 방법 및 도구개발 연구용역을 권위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토대로 '99년1월에 고등학교 해당교과 교사 15,000여명에 대해 연수를 실시할 계획임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 강화, 교육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교원 자율연수 강화 등 본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같은 학교교육의 개선 노력과 함께 대학이 명확한 입시전형 기준안을 확정 발표하여 학부모·학생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진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하며, 대학도 구조조정을 통한 대학별 한줄서기를 지양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형방법을 제시해야만 될 것임

(金貞淑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학교교육 새물결 운동 관련

- 「초·중학교교육 새물결 운동」의 성과와 교육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가?
- 「새물결 운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 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고등학교교육 새물결 운동」의 내용은?
- 「중학교교육 새물결 운동」추진시 많은 저항이 있었는데 「고등학교교육 새물결 운동」추진시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 「고등학교교육 새물결 운동」준비와 관련한 기초연구자료는?

(답 변)

- 모든 개혁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므로 초기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임
- 지난 7월 모 일간지를 통한 「새물결 운동」에 대한 여론조사('98.7.11 ~ 14) 결과
 - 「새물결 운동」의 취지와 내용에 교사들은 41%, 학부모들은 61%가 긍정적인 의견
 - 향후 「새물결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모든 교사·학생·학부모의 적극적 동참 유도
- 「초·중학교교육 새물결 운동」의 주요 성과
 - 수행평가, 과정평가, 도·농간 교환학습, 발표 및 토의 중심수업, 교육과정 운영중심 교원조직으로의 전환 등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정착 단계에 있음
-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개혁사업에 예산 지원 최대한 배려
 - 「새물결 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 학교규모의 축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 「고등학교교육 새물결 운동」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의 의견 수렴
 - 연구기관(KEDI)과 일간지 여론 조사팀을 통한 교원, 학생, 학부모 의식조사
 - 교육연구기관 주관의 공청회,
 - 교원에 대한 면담·설문조사 결과의 종합·분석
- 주요 과제
 -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
 -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방법 혁신

- 사고력·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평가 방법 혁신
- 교육정보화 실현
- 진로지도의 체계화 등을 통한 교육방법의 혁신

○소요 예산 : 총 16억5,350만원

- 최선을 다해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함
- 교육부의 「2002년 새 대학입시제도」와 「2002년 교육비전」의 관계
 - 『고등학교교육 새물결 운동』은 내용과 맥이 같아 더욱 교육력을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임

(질 의)

여성할당제 관련

- 여성의 교육행정직·전문직 진출을 위하여 여성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교육감 부임 이후 여성을 교장·교감·장학관·장학사에 발탁한 실적은?

(답 변)

- 초등의 경우 여교장은 교장 489명 중 75명으로 15%이며, 여교감은 교감 694명 중 151명으로 22%이고
- 중학교의 경우 240명 중 여교장은 36명으로 15%이며, 여교감은 교감 694명 중 46명으로 17%이며,
- 고등학교의 경우 여교장은 80명 중 5명으로 6%이며, 여교감은 104명 중 9명으로 7%임.
- 교장, 교감의 승진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특별히 배려할 수 없으나 여성할당제, 복수추천제, 남·여분리 평정 등은 앞으로 평정규정 개정시 건의하겠으며, '96년9월 현 교육감님의 취임이후 여성 교육장, 학무국장, 장학관, 연구관을 증원 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으며, 교육감 취임 이후 2년간 여자교장, 여자교감, 여자 전문직 임용현황은 초등의 경우 교장 26명, 교감 34명, 전문직이 14명이며, 중등은 교장 5명, 교감 8명, 전문직이 45명임.

(질 의)

교내에 노래방이 설치되어 있거나 음악 수업시간중에 팝송을 지도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음악 교육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바람직한 음악교육은 특정음악에 대한 편중 교육을 지양하고, 시대와 양식과 형식을 초월한 다

양한 음악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음악 수업시간에는 클래식, 팝송, 민족음악, 대중가요 등 무엇이든지 그 학습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다만 교내에 노래방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청소년 비행을 유발할 수 있는 비교육적인 환경의 노래방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때 건전한 내용의 노래방이 되도록 교육적으로 지도하겠음.

(金顯煜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교원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교직사회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답 변)

○교원의 사기저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시고 관심을 보여 주시며, 특히 교원의 사기 저하가 교직의 불안을 초래하고 교육 본질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작년말부터 시작된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부 재정과 함께 우리 서울교육의 재정 및 교사, 공무원들의 가정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또한 교육재정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일부 교사의 잘못된 간혹 언론에서 크게 취급되어 그렇지 않은 많은 선량한 교사들이 위축되었고, 이에 학부모 및 사회에서 교사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었으며, 또한 설상가상으로 정년단축이나 구조조정 등이 전체 교원의 사기저하에 영향을 주었다고 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염려하여 1998.10.10일자로「안정된 교직수행을 위한 협조요청」의 공문과 『존경하는 서울교육 가족 여러분』의 다음과 같은 요지의 교육감의 공한을 교사 전체에게 발송하였음.

우리 서울교육 가족은 시대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바른 교육만이 제2건국을 앞당길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흔들림 없이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안정된 교직수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교육감의 호소문을 보낸 바 있음.

우리 교육가족은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안정적인 직장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약·절감하여 교원의 봉급재원 확보 등 재정적 지원방안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원 임금지원에 대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체 노력은 물론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겠음.

○끝으로 교육개혁은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이지만 촌지나 학교부조리의 발본 색원 과정에서 사회 및 언론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용히 추진되어야 하고 정년단축이나 공무원 연금불안 등의 정책결정도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결정국가차원에서의 결정과 안정이 보장되며 교원의 사기가 드높은 가운데 모든 교육관계자가 협력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여 교육개혁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람

(질 의)

국제교육(초등영어)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과 그 동안의 평가는?

(답 변)

○국제교육은 21세기 세계화에 대비하고 창의적으로 세계를 주도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지닌 시민 육성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화 교육의 전문화를 위하여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영어교육과정에 의한 영어교육의 내실과 방과후 영어특별활동을 활성화 하여 조기 세계화 교육에 힘쓰고, 국제이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이해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지도방법의 일반화와 국제사회 적응능력을 기르도록 하며 국제기구인 『지구촌 클럽』활동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우리 나라의 경제 사정이 호전되면 교원들의 국제적 안목을 높이기 위한 국외연수 기회도 확대할 계획임.

(질 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교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취지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구축」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선출 등) 제3항은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의거 교감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질 의)

사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는 권장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금(방과후 교육활동비)을 지원하면서 운영위원회 미설치 학교를 제외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 변)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98년 6월부터 초등학교 488개교, 중학교 242개교, 고등학교 71개교(국·공립 70교, 사립 1교)에 3차에 걸쳐 86억9,912만원을 지원하였음(초등

학교 : 55억3,433만원, 중학교 : 16억2,199만원, 고등학교 15억4,280만원)

○사립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한가람고등학교(사립)에는 2,312만6,000원을 지원하였음

(질 의)

학교폭력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지도 대책을 강구하였는가?

(답 변)

□학교폭력 예방대책

○폭력예방 기반 조성

-남녀 혼성반 편성·운영

• 시범학교 지정·운영 : 29교(중 11, 고 18)

• '98 혼성반 편성·운영 현황

구 분	총학교수	공학학교수	혼성반운영학교수	운영비율	비고 (’97년도)
중	357	199	199	100%	90%
고	278	84	81	96.4%	65%

-일몰전 귀가운동 전개

- 모든 방과 후 교육활동은 일몰시간(여름 19:00, 겨울 18:00)이내에 종료 단, 야간 자율학습의 경우 희망학생에 한해 21:00 까지만 실시

-사회 동참 분위기 조성

-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 학교별 2회, 86,349명 참가
- 청소년 선도방송 : 4개 방송사, 매일 2분씩 방송

-예방 중심 성교육 강화

- 성교육 시간 확보·운영(초 5~고1 : 10시간 정도, 고2~3 : 5시간 정도)
- 성교육 지도서 '성과 행복' 개발·보급
- 시범학교 운영 : 중·고 각 1교

○상담활동 강화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 12개소(본청 1, 지역청 11)
(상담실적 : 29,672명 <'98.1.1~8.31 기준, '97.1.1~12.31 27,090명>)

• 특별상담의 날 운영 : '98.6월부터 시행, 센터별 월 2회 실시

-학교상담활동의 강화

- 전교원의 학생상담활동의 생활화
- 학생 희망교사와의 상담실시 : 학기당 1회 이상

• '오후 상담전담교사제' 운영

•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 279개소, 1,122명('97 : 236개소, 1,080명)

• 상담실적 : 133,022명('98.3~6실적, '97년간 244,096명)

○수련활동 및 여가 시간 학생활동 활성화

-수련장 대폭 확충 및 수련활동 참여 활성화

- 수련장(야영장 포함) 확충 및 여건 조성
- 제2야영장 신설 추진 : 500명 수용 규모
- 대천임해수련장 신설 추진 : 500명 수용 규모('99. 7 개장 목표)

서울학생교육원 수용 시설 확충 추진 : 176명→500명

• 수련활동 참여 활성화 : 초·중·고 학교급별 재학 중 1회 이상 참가 의무화

• 공공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청소년 건전문화 활동 적극 지원

• 청소년 주말 문화교실 운영 : 15개소(지역청당 1, 본청 4)

• 『어울마당』등 문화행사 활성화 : 각급 학교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

• 『서울학생 동아리 한마당』행사 개최('9. 11. 3~7)

• 『움직이는 시간』 운영의 학교별 특성화

-학생봉사활동의 생활화

- 학교계획에 의한 활동
학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학생이 그 중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유도
- 개인계획에 의한 활동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봉사활동 대상기관을 안내하여 안정적 활동기반 조성
- 1교사 1봉사 그룹지도제 운영 : 11,128 그룹, 230,552명

○부적응학생(복교생 포함) 지도대책의 다양화
-부적응학생 적응교육

- 서울학생교육원 적응교육(120명)
- 지역교육청 주관 적응교육(2,200명)
- 청소년상담센터 적응교육(719명)
- 청소년사랑실천시민연합 위탁 적응교육(600명)
- 단위학교 주관 적응교육 : 학교별 실시
- 학교폭력예방·근절 활동의 지속적 전개
- 개별상담 등 담임 중심 생활지도 강화
- 1교사 1학생 결연지도
- 중퇴생 복교 추진 : 2,208명('97-3,625명)
- 교·내외 취약지역 순회지도 : 순회조 편성·운영
- 학교폭력신고 전용전화 설치·운영 : 학교,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등
- 그린포스트 카드(학교폭력 피해 신고엽서) 제 시범 운영
(시범지역 및 학교·성동교육청 관내 중·고 35교<'97 중 : 2개교 운영>, 신고엽서 처리 실적 : 308건<'97-8월말 현재, 97-년간 8건>)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체계 강화
- 서울시청 : 학교폭력예방지원협의회 운영 협조
- 검찰청 :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공조
『준법우수학교 표창』운영 협조
- 경찰청 :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운영 협조
청소년 취약지역 합동순회지도 실시
- 청소년사랑실천시민연합 : 부적응학생 적응교육 위탁
- 서울 YWCA 청소년회관 : 학교폭력 신고엽서제 공동 운영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부적응학생 적응교육 및 학교폭력 신고엽서제 운영 협조

(질 의)

새물결운동 관련, 학교생활기록부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답 변)

-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은 지금까지의 입시위주,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 신장 및 인성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혁신적인 개선안으로,
 - 대학 입시의 속성이 선발임을 감안할 때, 공정성과 신뢰성의 유지가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임
 -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가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적용할 공통필수 10과목의 논술형·서술형 평가 방법 및 도구개발 연구용역을 권위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토대로 '99년 1월에 고등학교 해당교과 교사 15,000여명에 대해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 봉사활동,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 등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는 '99학년도 「고등학교교육 새물결운동」평가영역 선도(거점)학교에서 평가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각 고등학교에 파급·적용하도록 하고,
 - 아울러 학교별 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험·실습, 실기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한 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생에게 즉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음
 -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거 작성한 보조장부 기재 내용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전산 입력처리 하도록 하고, 출력물을 보조장부와 대조·확인하며, 의무적으로 학생 본인의 대조·확인을 거쳐 최종 출력물에 대하여 학교장이 결재하여 전산자료를 확정하도록 장학력을 강화하고 있음
 - 특기 신장을 위한 과외로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 요인의 문제는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과외 욕구를 학교안으로 끌어들이 불필요한 과외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음제198회 정기국회(교육위원회)
- (질 의)
-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정책을 발표하는데 있어, 교육부 본부와의 마찰을 빚은 원인이 무엇이며, 책임

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 변)

○우리 교육청에서 발표하는 교육시책과 교육부의 교육정책 간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의견의 차이라고 생각함.

○교육부는 전국적 차원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비해 우리 교육청은 서울의 특수한 여건을 바탕으로 서울교육시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령과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교육청은 국회와 정부에서 정한 법령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일선학교의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시책을 수립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시책과 교육부의 교육정책간에 마찰이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이는 어느 조직에서나 있을 수 있는 발전적 차원에서의 의견 차이이며 전체적 맥락 속에서는 서로 상통하는 것으로 생각함.

(질 의)

인건비 지급 관련,

올 11, 12월 교원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과 책임소재는?

(답 변)

○우리 교육청에서는 IMF 구제금융체제하의 내국세 및 지방세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98년 당초 예산 대비 3,294억원의 세입이 감액되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3회에 걸친 실행예산과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음.

○나아가 이러한 미증유의 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교육청 직원뿐만 아니라 8만여 서울교육 가족 모두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고통을 분담하고 모두 함께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일선의 자각과 협력을 촉구함.

○이 과정에서 자금 압박의 장기화가 계속되면, 인건비의 지급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표명된 것으로 사료됨.

○우리 교육청 간부급 공무원들이 출선수범하는 자세로 업무추진비의 일부를 지급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교원들의 인건비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

○아울러, 각급 기관과 학교에 '98.10.10일자 교육

감의 공한을 시달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교직사회의 일부에서 야기된 불안감을 불식시킨바 있음.

(질 의)

영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교육부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영어교육 대비책은 ?

(답 변)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교사의 의사소통 능력 배양 및 교수-학습방법의 변화, 기자재 확보 등이 성패의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우리 교육청은 원활한 초등 영어교육 실시를 위하여 '96년부터 영어교사 연수, 시설 및 기자재 확보, 교과서 선정 등 철저한 준비를 하여 순조로운 출발을 하였음.

○초등영어교육은 담임교사가 지도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교환수업, 영어전담교사 담당, 팀티칭 등으로 지도하고 있음

○현재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는 연수이수자 총 10,971명을 확보하고 있음

○고학력미취업자(중등 영어교사 자격소지 및 영어 전공자) 중에서 '98.9월 351명을 채용하여 영어수업 보조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초등교원의 수업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들에게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내용체계와 교육방법 등을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96부터 실시된 교원연수도 초등학생의 발달단계와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미있고 쉽게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에 주안점을 두어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영어지도교사 자원을 확보하였음.

○학습자료도, 교사용지도서, 비디오테이프, 교과서 및 녹음테이프가 무상으로 지급되었으며 다양하고 간단한 자료는 11개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된 교사들의 자율적인 영어공부방에서 공동제작·보급하여 업무 경감에 노력하고 있음.

○또한 TV, VTR, OHP 녹음기 등 교실 기본교구를 100% 구입하여 영어교육에 활용하고 있음.